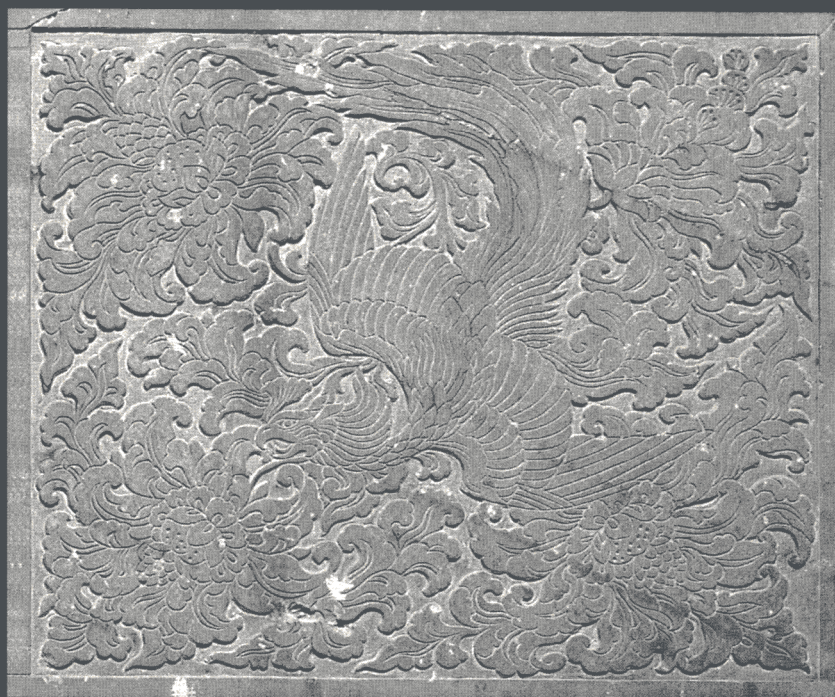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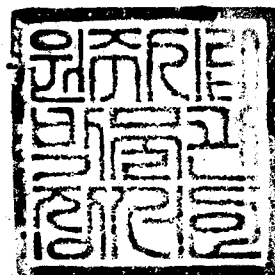


# 原州文化財要覽



原州文化院

# 原州文化財要覽



原州文化院

# 발 간 사



原州文化院長 朴 亨 鎭

東으로는 鎭山인 雉岳山이 偉容도 堂堂히 자리하고 西는 蟾江, 南으로는 民族의 發源地인 南漢江이 포근히 감돌고 있으니 沃土가 넉넉하기에 예로부터 淳朴하게 살아온 곳이 原州입니다. 때로 王朝 變革期의 活動 舞臺였으며 朝鮮朝 時代에는 五百年間 江原의 首府로써 江原監營이 設置되었고 보니 由緒깊은 古都입니다. 그러기에 管内 山河에는 歷史의 두께만큼이나 오랜 歲月동안 찬바람 된서리 맞으면서도 이끼낀채로 굳건히 버텨주고 있는 많은 文化財속에서 선조님들의 崇高한 固有 精神文化, 삶의 哀歡 그리고 숨결이 겹겹히 쌓여 오늘을 사는 우리 後孫들과 함께 呼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近來 時代 潮流는 설사이 없이 急變하고 있어 農耕社會에서 産業社會로 탈바꿈된 것이 日淺한데도 이제 21세기 世界情報化 時代를 맞이해야 하니 우리 民族의 本質과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미처 생각할 餘裕가 적었던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 燦然했던 文化遺産을 通하여 民族의 強靱한 生命력을 反芻하고 슬기와 힘을 다시 가다듬어 民族의 精氣를 振作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에 鄉土의 文化遺産을 널리 알리면서 發掘保存하고 代代로 더욱 所重하게 지키고 가꾸려는 뜻에서 今般 原州 文化財 要覽을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冊子가 널리 普及되어 우리 모두 잊혀졌던 先人들의 文化遺産을 再認識하여 自矜心으로 鄉土文化發展의 轉機가 새롭게 展開되기를 祈願합니다.

끝으로 이 冊子 發刊을 爲하여 物心兩面으로 後援해 주신 金起烈 原州市長님에게 깊은 感謝를 드리며 監修를 맡아주신 鄉土史 研究委員의 勞苦에 致賀드립니다.

# 축간사



原州市長 金 起 烈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고장의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文化財의 寫眞을 담은 「原州文化財要覽」이 發刊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합니다.

우리고장 原州는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古代로부터 祖上들의 슬기와 체취가 남아있는 많은 有·無形의 文化遺産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文化유산은 外侵과 民族間의 戰亂, 또는 産業化와 現代化의 과정에서 많은 受難을 받기도하여 어떤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發刊되는 「原州文化財要覽」은 우리고장에 남아 있는 많은 文化유산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들을 가려서 文化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도록으로 만들고, 文化재의 해설을 수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책에서 우리고장 원주의 전체 文化재를 수록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고장에서는 처음 만들어지는 「문화재요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原州文化財要覽」이 郷土史資料의 빈곤에 목말라했던 학생들에게는 훌륭한 교과서 역할을 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읽혀져 선조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文化재의 의미를 알고, 文化재를 사랑하며 보호하는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原州文化財要覽」을 발간해 주신 원주문화원장님과 1년여의 사진촬영과 자료수집 및 편집에 참여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 ■ 목 ■ 차

발 간 사	2
축 간 사	3
국 가 지 정	7
국        보	7
보        물	17
사        적	29
천연기념물	33
중요무형문화재	41
강 원 도 지 정	45
유형문화재	45
기        념        물	69
문화재자료	77
무형문화재	93
중요비지정문화재	97
불 교 유 적	97
유 교 유 적	113
태실	119
관방유적	125
문화재 명칭 · 용어해설	131

# 국 가지 정

## 국 보

1.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2.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3. 전흥법사 염거화상탑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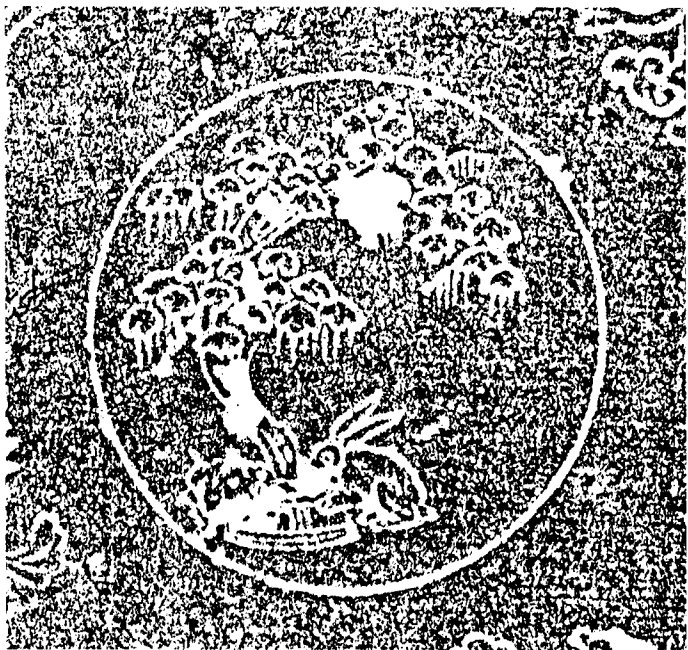
◀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국보 제59호



◀ 1 ▶  
옆모습 ▶



〈1-2〉 비신상단 비천문양



〈1-3〉 비신상단 일월문양(중달)



〈1-4〉 비신상단 일월문양(중해)





❶ 5> 탑비전지석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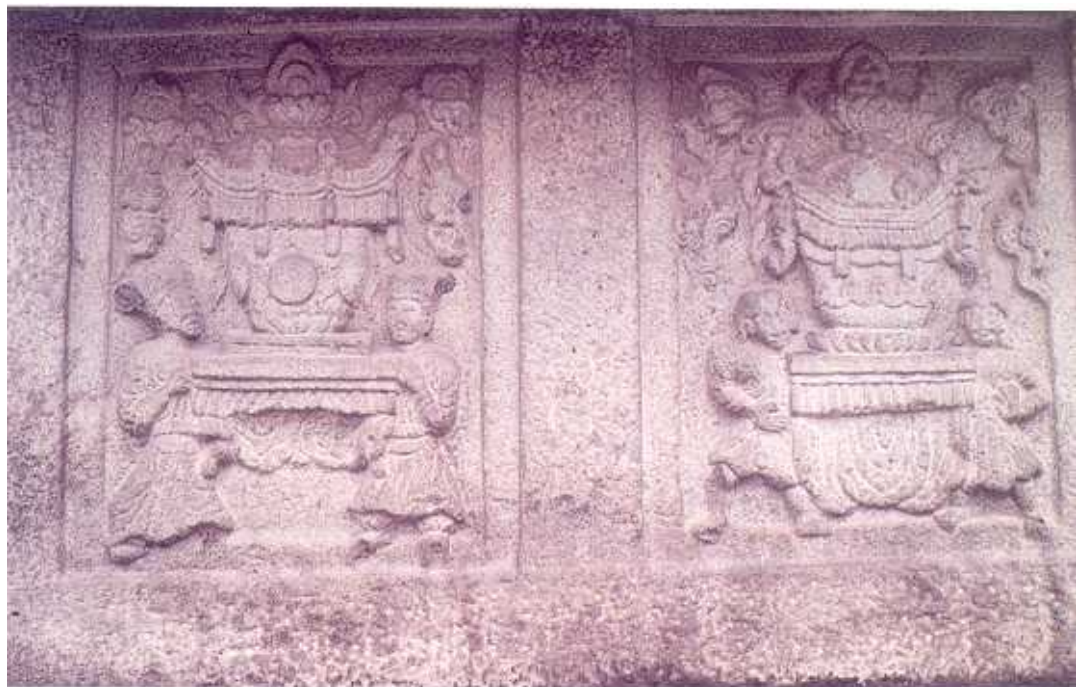




◀ 법천사 지장국사현묘탑  
국보 제101호

<2 1>

사진2의 탑신분양



<2

사진2의 탑신분양











<3 1>  
합신문양



<3 2>  
기단부 문양

3

◀ 천흥법사 염거화상탑  
국보 제104호

# 국 가 지 정

## 보 물

4. 거돈사 원공국사승묘탑비
5. 거돈사 원공국사승묘탑
6. 거돈사 삼층석탑
7. 흥법사 진공대사탑부석관
8. 흥법사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
9. 흥법사지 삼층석탑
10.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





4

거돈사 원공국사승묘탑비  
보물 제78호



5

거돈사 원공국사승묘탑  
보물 제190호











<6 1>

거둔사 극당지 불좌대

6

◀ 거둔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750호







<7-1>

진공대사탑 부석관









◀ 홍법사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  
보물 제463호

<8-1>

사진8의 옆모습







9

◀ 홍법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365호





10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  
보물 제358호

# 국 가지 정

## 사 적

### ■ 11. 거돈사지





11

거둔사지  
국적 제168호







# 국 가 지 정

## 천연기념물

12. 성황림

13. 반계리 은행나무

14. 흥업면 느티나무







12

◀ 성 황 립  
천연기념물 제93호

<12-1>  
성 황 당







13

반계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167호



<13-1>

사진13의 하단부 줄기











<14-1>  
느티나무 줄기

# 국 가 지 정

## 중요무형문화재

### ■ 15. 나전칠기장 이형만





15

나전칠기장 이형만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15-1>  
당초용문 나전합



<15-2>  
포도동자문 나전합



# 강원도지정문화재

## 유형문화재

16. 강원감영 포정루 · 선화당
17. 일산동 석불좌상
18. 일산동 오층석탑
19. 구룡사 대웅전
20. 상원사 석탑 및 광배
21. 용운사지 석조비로자나불상
22. 용운사지 삼층석탑
23. 봉산동 당간지주
24. 태장동 왕녀복란태실비
25. 봉산동 석조보살입상
26. 봉산동 석불좌상
27. 비두리 귀부 및 이수
28. 김두한 가옥
29. 보문사 청석탑
30. 용소막 성당

강원감영 선화당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호







<16-1>  
강원감영 포정루







17

◀ 일산동 석불좌상 1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호



<17-1>  
일산동 석불좌상 2







〈18-1〉

▼ 일산동 오층석탑 및  
석불좌상전경











<19-1>  
사진19의 단청





20

상원사 석탑 및 광배(동탑)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5호





<20-1>  
상원사 석탑(서탑)









<21 1>  
불상좌측 파불

21

◀ 몽운사지 석조비로자나불상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2호





22

용운사지 삼층석탑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3호





23

봉산동 당간지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9호



24

아파트 건축공사 前 개장동 태봉(왕녀복란 태실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6호



<24-1> 발굴모습  
(노출된 태호)



<24-2> 발굴모습  
(노출된 석함)















26

봉산동 석불좌상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8호





27

비두리 귀부 및 이수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0호

28

김두한 가옥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86호



29

보문사 청석탑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3호









30

용소막 성당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6호



# 강원도지정문화재

## 기념물

- 31. 영원산성
- 32. 황장금표
- 33. 법천사지



31

경원산성

강원도 기념물 제27호



<3 1> 성곽부분



<3 2> 산성전경





32

황상금표

강원도 기념물 제30호



<32-1>

치악산 황장목(소나무)







33

법천사지  
강원도 기념물 제48호





# 강원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 34. 상원사 대웅전
- 35. 입석사 석탑
- 36. 법천사지 당간지주
- 37. 김제남 신도비
- 38. 주포리 삼층석탑 및 마애불상
- 39. 흥법사지
- 40. 원주향교





34

상원사 대웅진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18호



<34-1>  
상원사 범종각

















<37-1>  
이수뒷면



<37-2>  
귀부



37

◀ 김제남 신도비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21호











〈38-2〉  
주포리 삼층석탑





〈38-3〉  
부도군(학서당, 서응당 부도)



<39-1>

사지 전면 석축









40

원주향교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98호







<40-1>  
대성전



<40-2>  
명륜당



# 강원도지정문화재

## 무형문화재

### ■ 41. 전통자기도공 장송모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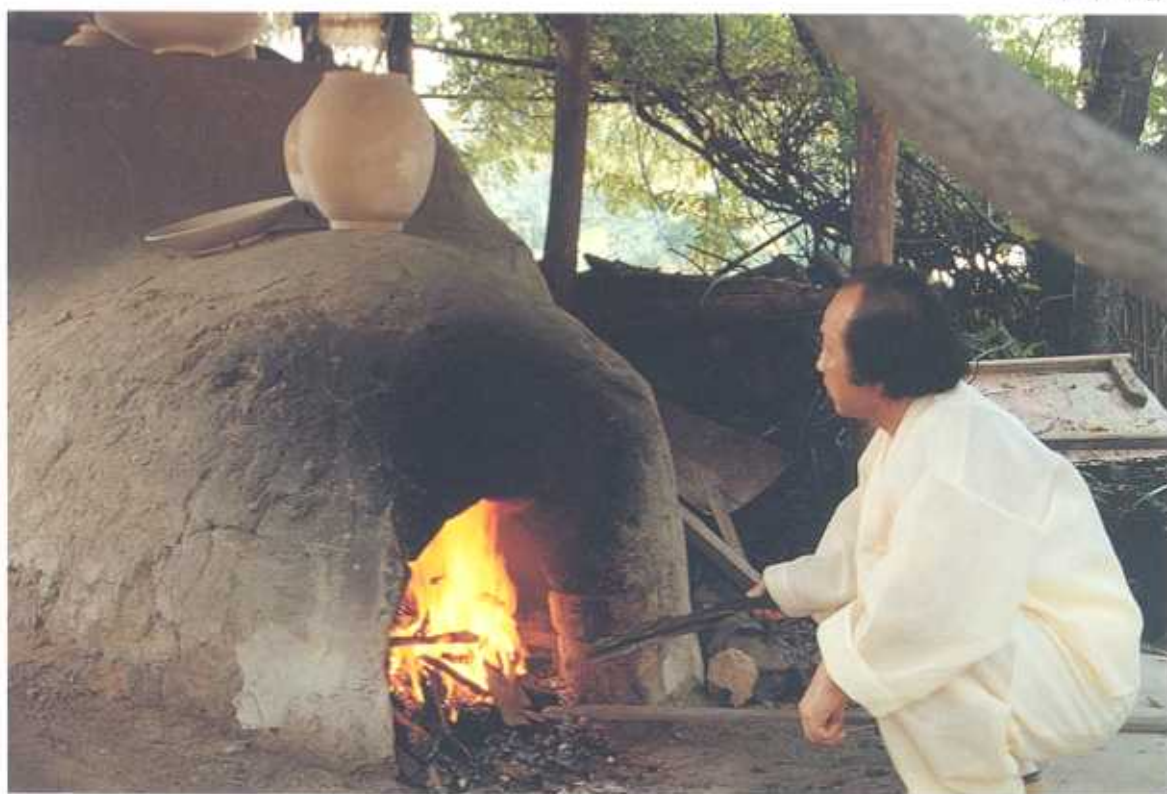
전통자기도공(장송모)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6호





<41-1>  
작품(철화매화문백자)

<41-2>  
가마모습



## 중요비지정문화재

### 불교유적

- 42. 교항리 마애보살공양상
- 43. 교항리 불두
- 44. 입석사 마애여래불상
- 45. 수암리 마애삼존불
- 46. 매지리 석조보살입상
- 47. 신선암 석조보살입상
- 48. 부흥사지 석탑재
- 49. 일산동 석탑재 및 불상
- 50. 서곡리 석탑재
- 51. 천수사 오층석탑
- 52. 천수사 삼층석탑



&lt;42-1&gt;

교항리 암각공양보살상 스케치 ▶









43

교항리 석조불두









<45-1>  
삼존불상 스케치 ▶

45

수암리 마애삼존불







46

매지리 석조보살 입상









<48-1>  
 사진48의 팔부중상







49

◀ 일산동 석탑재 및 불상



50

서곡리 석탑재











## 중요비지정문화재

### 유교유적

53. 충효사

54. 경현사

55. 영정각







<53-1>  
충효사 사액 현판







## 중요비지정문화재

### 태실

56. 산현리 태실

57. 숙정·숙휘공주 태실







<56-1>  
도굴된 석함



<56-2>  
태봉전경







<57-1>  
태봉진경





# 중요비지정문화재

## 관방유적

### ■ 58. 금대산성



58

금대산성



<58-1>  
문지



## 문화재 명칭 · 용어해설



## 1.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法泉寺 智光國師玄妙塔碑)



高麗 宣宗 2년(1085)에 세워진 5.54m 높이의 이 石碑는 고려시대 석비로서의 특징적인 양식을 보이는 걸작품으로 조각 또한 정교하다. 龜趺는 넓은 地臺石 위에 놓였고 밑에는 구름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龍頭화된 거북머리의 목은 길게 곧추서서 정면을 향하고 목에는 물고기 비늘을 표현했다. 등에는 네모 구획 안에 따로 龜甲紋을 새겼으며 다시 그 안에 '王' 자를 양각했다. 등의 중앙에는 간결한 伏蓮의 碑座를 마련하여 碑身을 세웠다. 비신의 바깥 둘레에 寶相唐草紋을 조각하여 돌린 것이 특징이며 양 측면에 雙龍을 조각한 것도 특이하다. 螭首는 모자를 쓴 듯한 형태이며 네 귀에 轉角이 뚜렷하고 귀꽃이 있다. 이수 중앙에 相輪部를 두어 寶珠를 얹었다.

智光國師는 고려 成宗 3년(984)에 태어났는데 俗名은 海麟이다. 穆宗 2년(999)에 龍興寺에서 具足戒를 받았다. 역대 왕의 우대를 받았으며 三重大師, 僧統이 된후 文宗 12년(1058)에 國師가 되었다. 동왕 21년(1067) 84세로 이곳 法泉寺에서 세상을 떠났다. 碑文은 鄭惟產이 짓고 安民厚가 글씨를 썼다.

국보 제59호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 2.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法泉寺 智光國師玄妙塔)



이 浮屠는 8각 圓堂의 기본형에서 벗어나 평면 4각형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양식을 보여 주고 있어, 韓國 墓塔중에서 최고의 걸작이다. 기단 구조는 7층이나 되는 돌各部에 彫飾이 가득차 있다. 구성은 地臺石이 매우 넓고, 층층의 높이와 너비에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地臺石 네 모서리에는 용의 발톱 같은 조각이 땅바닥에 까지 닿아서, 땅위에 단단하게 밀착된 듯 안정감을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다. 맨 위층 甲石에는 화려한 帳幕形이 4면에 드리워져 있어 장엄을 더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면에는 眼象·雲紋·蓮華紋·寶塔·神仙 등이 빈틈없이 조각되어 있다. 塔身에는 앞뒷면에 門扉形과 좌우에 페르시아풍의 櫺窓을 조각하고, 다시 瓔珞으로 장식해 놓았다. 屋蓋는 天蓋形으로 장막이 드리워지고, 아랫면에 해당하는 위치에 佛·菩薩·鳳凰 등 조각도 복잡하다. 相輪部는 仰花·覆鉢·寶蓋·寶珠가 층층으로 올려져 있고, 그 전면에도 彫飾이 가득차 있다.

형태를 보아도 자유로운 意匠으로 조형되었을 뿐 아니라, 조각이 풍부하고 정교하다. 高麗 부도로서 유례를 볼 수 없을만큼 뛰어난 작품임에 틀림이 없다. 탑에는 기단 네 모서리에 사자가 1쌍씩 있었으나 지금은 볼 수 없고, 탑 자체도 일찍이 1912년에 日本 大阪까지 반출되었다가 반환되어 현위치에 세워졌다. 또한, 6.25전쟁 때 포탄의 피해를 받은 것을 1957년에 보수하는 등 수난을 겪어 왔다.

法泉寺址에는 塔碑가 아직 남아 있고, 탑과 비가 같이 서 있었던 건물 자리가 조사되었다. 碑文에 의하면 智光國師塔碑의 건립이 高麗 宣宗 2년(1085)이므로, 이 탑도 그 때 세워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국보 제101호 원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 현소재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1 경복궁

### 3. 전흥법사 염거화상탑 (傳興法寺 廉居和尚塔)



新羅에서 高麗에 걸쳐 高僧의 墓塔으로 8각 圓堂形 浮屠가 많이 유행하였는데, 이 탑은 연대가 확실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아래위 각부는 8각을 기본으로 삼았고 下臺 각면에는 獅子를 양각하였다. 얇은 竿石에는 眼象 안에 香爐 등을 조각하고, 2중으로 蓮華를 조각한 上臺石을 얹어 놓았다. 상대석 위에는 높직한 塔身받침을 마련하였는데, 그 8면에는 다시 眼象을 두고, 안에 天部像 1軀씩을 양각하였다. 塔身에는 4면에 門廡形을, 다른 4면에는 四天王像을 조각해 놓았다. 屋蓋는 椽木이나 기왓골은 물론 막새기와에 이르기까지 목조건축을 충실히 모방하였고, 그 아랫면에는 飛天이 양각되어 있다.

규모는 크지 않으나 우아한 기품과 소박한 彫法을 보여주며, 세부 조각도 清雅하다. 이 탑은 흥법사지에서 塔洞公園에 옮겨졌다가 다시 현위치로 옮겨 세웠다. 옮길 당시 탑 속에서 金銅塔誌가 발견되어, 이 탑이 新羅 文聖王 6년(844, 唐 武宗 會昌 4년)에 세워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

국보 제104호 원소재지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현소재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1 경복궁

### 4. 거돈사 원공국사승묘탑비 (居頓寺 圓空國師勝妙塔碑)



이 碑는 高麗의 高僧 圓空國師(930~1018)의 행적을 기록한 비로서 大學者인 崔冲이 碑文을 짓고 金巨雄이 글씨를 써서 顯宗 16년(1025)에 세웠다. 거돈사지에는 원공국사의 浮屠(보물 제190호)인 勝妙塔도 있었으나 현재는 景福宮 안에 옮겨져 있다.

龜趺의 거북머리가 용머리 같이 변화하였는데 양쪽 귀 뒤가 물고기 지느러미 같이 되어 있다. 龜甲紋 안에는 卍字와 연꽃무늬가 교대로 장식되었다. 비머리인 螭首에는 구름 위에 요동치는 용이 불꽃에 싸인 寶珠를 다투어 물고자 하는 모습을 섬세하고 화려하게 조각하였다. 이 비는 높이가 499.7cm, 비신의 폭은 123.8cm이며 高麗初 조각예술의 높은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보물 제78호 ·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 5. 거둔사 원공국사승묘탑 (居頓寺 圓空國師勝妙塔)



이 탑은 원 위치인 거둔사지를 떠나 서울 시내에 거주하던 日人 和田稔의 집에 있던 것을 해방 후 1948년 현위치로 옮긴 것이다.

현 위치에는 地臺石이 없고, 지면에 곧 기단 下臺石부터 놓여 있다. 하대석은 8각인데, 각 면에는 일반적인 형태의 眼象이 1座씩 있고, 그 안에 花形이 양각되었다. 윗면에는 甲石形을 刻出하고 16葉의 複瓣 蓮花紋이 있는 가운데 3단의 물딩이 있어 中臺石을 받게 되었다. 중대석 또한 8각으로 上下에 테를 돌리고 각 면 좌우에 1단의 굴곡을 둔 간략한 眼象을 두고 그 안 全面에 걸쳐 八部衆像이 1軀씩 조각되었다. 上臺石은 瓣 안에 花形을 나타낸 單瓣蓮華 16葉씩을 상하 2중으로 돌려 仰蓮을 삼았고, 윗면에는 弧形을 중심으로 그 상하에 角形을 안배하여 8각 3단의 꺾을 마련하였다.

탑신은 8각으로 隅角에는 기둥 모양이 있는데 花紋帶로 장식하였고, 각 면에는 앞뒤 양면에 門扉形과 좌물쇠형을, 좌우 양면에 窓戶形을, 그리고 남은 4면에는 四天王立像이 양각되었다.

屋蓋石 역시 8角으로 탑신과 접하는 곳에 4단 받침을 표출하고, 그 위에 角形椽木이 模刻되었다. 추녀도 얇고 隅角에는 反轉이 뚜렷하다. 屋上에는 8줄의 隅棟形이 곡선을 그리며 흐르다가 轉角에 이르러 花形을 달았고, 落水面에는 기왓골을 模刻하여 추녀에 이르러 암막새·숫막새를 새겨 아래 위 모두 목조 건축의 지붕을 충실히 본떴다. 꼭대기에는 역시 8각형의 寶蓋가 얹혀 있을 뿐이다.

조형의 비례가 整齊되고 중후한 품격을 풍기는 秀作의 하나이다. 滿面에 彫鑿가 莊嚴하여 한층 화려하여 보이나, 조각 기법은 平板적이고 細刻에 흘러 雄渾함이 없는 흠을 숨길 수 없다.

圓空國師는 高麗 太祖 13년(930)에 출생하여 顯宗 9년(1018)享齡 89세로 入寂한 高麗 초의 高僧이다. 碑는 太平乙丑秋七月에 건립되었으니 太平은 契丹의 年號로 乙丑은 그 5년, 곧 高麗 顯宗 16년(1025)에 해당하므로, 이 탑도 그 무렵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물 제190호 원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현소재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1 경복궁

## 6. 거둔사지 삼층석탑 (居頓寺址 三層石塔)



이 석탑은 9세기 新羅 石塔이다. 二重基壇 위에 3층의 塔身을 올렸다. 탑신에는 隅柱가 새겨 있고 屋蓋石은 층급 받침이 5단으로 귀 끝이 약간 치켜들려 있다.

탑꼭대기의 相輪部에는 露盤이 남아 있다. 이 탑은 統一新羅 3층 定型塔 樣式을 따르고 있으며 높이가 5.44m이다.

· 보물 제750호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 7. 흥법사 진공대사탑부석관 (興法寺 眞空大師塔附石棺)



이 탑은 1931년 원 위치에서 옮겨진 것으로, 石棺도 동시에 옮겨 온 것이다. 興法寺 터에는 아직도 伽藍의 遺墟가 뚜렷하며, 石槨·3層石塔 외에 眞空大師塔碑(碑身은 國立中央博物館에 보관)가 전하고 있다.

탑은 8각 圓堂의 기본형을 충실히 답습하고 있다. 넓찍한 4각형 地臺石 위에 8각 2단의 물딩이 있어 기단 下臺石을 받치게 하는 성의를 보였다. 하대의 伏蓮石에는 16葉의 複瓣蓮華가 조각되었는데, 각 隅角마다 나지막한 귀꽃이 표현되었다. 복련 밑에는 높직한 면을 두어 각 면마다 뿔이 안으로 날카롭게 뻗은 眼象 1座씩이 있고, 그 안에 花形이 조각되었으며, 윗면에는 굴곡이 있는 높직한 꺾임이 있다. 그 위의 中臺石은 거의 모를 죽여 북 모양을 만든 표면에 雄渾한 솜씨로 雲龍이 조각되었다. 上臺石에는 하대석과 같은 수법의 複瓣蓮華 8葉의 仰蓮이 있고, 그 위에 角形 2단의 꺾임이 있다.

塔身 또한 8각으로 각 隅角의 기둥 모양은 아래위 중앙에서 안으로 花形이 좌우에서 내밀어지는 특이한 형식이며, 앞뒤 양면에는 戶形과 자물쇠형이 模刻되었다.

屋臺石은 약간 높은 편으로 탑신 위에 3단 받침을 중심으로 2중 椽木을 細刻하고 轉角은 높이 솟았다. 屋上에는 8줄의 굽은 隅棟이 흐르다가 전각에 이르러 높직한 귀꽃이 표현되었고, 그 사이에는 기와를 입힌 모양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암막새·숫막새까지 模刻되었다. 꼭대기에는 8각의 작은 寶蓋가 있으나 그 외는 없어졌다.

옆의 石棺도 端雅한 수법을 보이는 가운데 蓋石까지 구비한 회귀한 예라 할 수 있다. 아래쪽에 사이를 두고 넓은 가로띠를 돌리고, 밑바닥과의 사이에는 앞뒤에 2區씩과 좌우에 1區씩의 眼象이 있으나, 그 수법은 탑의 아래 基壇의 안상 수법과 같으나, 안상 안에는 彫飾이 없다.

이 탑이나 석관의 조성 연대에 대하여는 塔碑에 의거함이 가장 정확할 것이나 비석이 파손되어 알 수 없다. 그러나 《高麗史》世家 太祖 23年條에 「秋七月王師忠湛死 樹塔于原州靈鳳山 興法寺」라는 기록이 있어 조성 연대 考證에 참고가 될 것이다. 高麗 太祖 23년은 서기 940년이다.

보물 제365호 · 원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 현소재지 : 서울 종로구 세종로1 경복궁

## 8. 흥법사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 (興法寺 眞空大師塔碑 龜趺 및 螭首)



眞空大師의 塔碑는 新羅末 高僧인 진공대사가 唐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와 高麗 太祖의 王師가 되어 태조 23년(940)에 입적하니 태조가 비문을 짓고 唐 太宗의 글씨를 集字하여 세운 비인데, 碑身은 景福宮에 옮겨지고 龜趺와 螭首만 남아 있다. 이 비에 따른 浮屠도 1931년 경복궁으로 옮겨졌다.

귀부는 龍頭化한 거북머리에 입에는 如意珠를 물고 있고 네발로 臺石을 힘있게 딛고 있다.

이수는 眞空大師란 篆字 글씨가 새겨 있고, 구름문양 속에 생동하는 龍이 정교하고 섬세하게 조각되어 당대 彫刻藝術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보물 제463호 ·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 9. 흥법사지 삼층석탑 (興法寺址 三層石塔)



이 탑은 高麗時代に 造成된 석탑이다. 二重基壇 위에 3층의 塔身을 올렸는데, 밑 기단에는 각 면에 3구씩의 眼象이 彫刻되었다. 기단에 비하여 塔身이 빈약하게 作아졌으며, 屋蓋石의 落水面 경사가 급하다. 相輪部에는 露盤만 남아 있으며 탑 높이는 3.69m이다.

보물 제464호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 10.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 (令傳寺址 普濟尊者舍利塔)



高僧의 墓塔형식이 佛塔과 구별되어 浮屠라고 불리는 별도 형식이 있으나, 이 탑만은 불탑과 다름없이 2중 기단 위에 3층 塔身을 올려 놓은 형식이다.

2층의 기단에는 아래 위 각 면에 각각 撐柱 하나씩이 模刻되고, 위층 기단 윗면에는 塔身을 받치기 위한 1장의 돌을 따로 끼워 놓은 것도 高麗 석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塔身부는 屋身과 屋蓋가 각각 한 돌로 되어 있으나, 各部의 양식은 두 탑이 반드시 같지 않다. 한 탑은 다른 탑에 비해 옥개석이 약간 鈍厚한 느낌이 있다. 옥개석 받침은 각각 4단이고, 옥개의 추녀 轉角은 밑이 조금 들려 있다.

相輪部는 모두 완전하게 남아 있지 않으나, 한탑에는 覆鉢·寶珠, 다른 탑에는 露盤·覆鉢·寶輪등이 남아 있다.

이 탑은 1915년 日本人에 의해 敬福궁으로 옮겨 세웠는데, 탑 안에서 각각 舍利莊嚴具가 발견되었고, 그 중 한 탑에서는 가로 세로 약 30cm의 蠟石製誌石이 있었다.

普濟尊者是 驪州 神勒寺에서 入寂한 懶翁和尚으로, 神勒寺에 石鐘形浮屠(寶物 第228號)가 남아 있는데, 그의 門徒들이 이 곳에 다시 墓塔을 세웠던 것이다.

僧侶의 墓塔으로는 通式을 벗어난 점에서 특이한 형식을 보여 줄 뿐 아니라, 塔誌石이 발견된 것은 이 탑의 建立緣由를 고찰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보물 제358호 · 원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 현소재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1 경복궁

## 11. 거돈사지 (居頓寺址)



거돈사는 新羅時代에 創建된 寺刹이었으나 壬辰倭亂 때 燒失되었다 한다.

현재 金堂址와 佛座臺가 남아 있는데 柱礎石들의 배치상태로 보아 큰 규모의 佛殿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三層石塔(보물 제759호)과 高麗 顯宗 16년(1025)에 건립된 圓空國師 勝妙塔碑(보물 제750호)가 있다.

원공국사 승묘탑(보물 제190호)은 日帝 때 서울로 옮겨져 일본인 집에 있던 것을 1948년 景福宮으로 옮겨 보존하고 있다.

현재의 遺物들로 보아 이곳은 羅末麗初 때의 절터로 보이며, 이 시대 사찰로서는 보기 드문 一塔式 伽藍配置를 하고 있다.

사적 제168호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 12. 원주 성남리의 성황림 (原州 城南里의 城隍林)



우리나라 溫帶林의 일부로서 保存되고 있는 이 숲은 복자기, 귀룽나무, 느릅나무, 졸참, 갈참, 신갈나무, 털피나무 및 털야광나무 등을 비롯한 50종 내외의 木本植物과 그 밑에서 자라고 있는 비슷한 숫자의 풀로 구성되어 있다. 한쪽에는 습지가 있어 濕地植物이 자라고 있는데 양쪽에 내가 흐르고 있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습기를 공급하고 있어 식물의 生活에 理想的인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 숲은 雉岳山麓에 정착한 선구자들이 농사일을 시작하면서 치악산의 城隍神을 마을의 守護神으로 모시던 서낭숲이며 온갖 정성을 다하여 지켜온 결과 남은 숲이다.

自然을 의지하여 삶을 영위하던 先祖들의 열이 담긴 이 숲에서 이 근처에서 자라던 나무와 풀을 볼 수 있고 또 선조들이 하던 일터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이다. 서낭당 옆에 서 있는 커다란 전나무(높이 29m, 가슴높이의 지름 1.3m)와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10여 그루의 늙은 복자기나무들이 옛 사실을 말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93호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 13. 반계리 은행나무 (磻溪里 銀杏)



이 나무의 나이는 확실하지 않으나 키가 33m, 줄기의 가슴높이 둘레가 13m나 되는 老巨樹이므로 대략 800년 정도라고 본다.

傳說에 의하면 이 나무는 옛날에 어떤 大師가 이곳을 지나는 길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꽂고 간 것이 성장한 것이라고도 하며, 이 나무 속에 큰 白蛇가 살고 있어서 아무도 자르지 못하는 神木으로 가꾸어 오게 되었다고도 한다. 현재에도 이 나무가 단풍이 일시에 들면 다음해에 풍년이 든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 천연기념물 제167호 ·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 14. 원주 흥업면의 느티나무 (原州 興業面)



이 느티나무는 높이 22m, 가슴높이의 둘레 7.6m, 밑동둘레 9.8m의 老巨樹로서 樹齡은 350년 정도로 보고 있으며 原州市에서 제일 큰 나무로 알려져 있다.

가지는 東西로 25m, 南北으로 24m 정도 퍼져 있다.

· 천연기념물 제279호 ·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 15. 나전칠기장 이형만 (螺鈿漆器匠)



螺鈿은 자개 그릇이나, 자개로 만든 공예품으로 조개의 조각을 漆地나 木地에 끼워서 장식하는 것으로 古來로 우리나라의 특산품이다. 螺鈿漆器에는 櫃, 衣藏, 卓子, 硯箱, 밥상 등이 있는데 慶南 統營産이 유명하다.

漆器 종류로는 案, 盤, 배, 函 등으로 漆은 黑漆과 朱漆이 보통이고 이 외에 彩漆로서 人物, 禽獸, 怪雲, 기타의 여러 문양을 음각하고 있다.

螺鈿은 제주의 전복 껍데기만이 사용되며, 옷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일대에서 생산되나 우리나라 옷이 으뜸이며, 그 중에서도 치악산에서 생산되는 원주 옷이 최상품이다. 우리나라 옷은 剛柔의 특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윤택이 나며 두꺼운 것이 특징이다. 나무는 紅松, 檜, 全羅道産 杏子木, 美松, 白松 등이 사용된다.

원주에서는 김봉룡(1902년 1월 30일생)씨가 1966년 6월 29일, 국가 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로 나전칠기 제작기능을 지정받아 활동하다가 1994년 9월 작고함에 따라, 1996년 12월 10일자로 이형만(원주시 단계동 942-3번지, 1946년 12월 7일생)씨가 새로 지정받아 전승해 오고 있다. 이형만씨는 1963년 충무공예학교를 졸업하고 그해부터 김봉룡선생에게 지도를 받기 시작하였고, 1988년에는 서울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승공예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칠기장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42-3

## 16. 강원감영 포정루 및 선화당 (江原監營 布政樓 및 宣化堂)



原州에 監營이 設置되었던 시기는 朝鮮 太祖 4년(1395)이며 營門에서 유래되었다 한다. 이 문은 감영의 正門으로 建立되었으며 壬辰倭亂때 燒失된 것을 顯宗 元年(1660)에 牧使 李後山이 再建하였는데 6·25전쟁 때 일부 파손된 것을 그후 補修하였다 한다. 布政樓는 方形長礎石 위에 민흘림기둥을 세운 정면 3칸 측면 2칸의 二層樓閣 팔작지붕 겹처마 건물로 翼工系樣式이다. 1층 중앙칸에는 2짝의 板門을 달고 2층은 우물마루를 짜았는데 주위로는 鷄子欄干을 돌렸으나 궁창판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고 천장은 연등으로 마감하였다.

이 감영 자리에는 원주시廳 別館이 들어섰지만 당시의 건물로 선화당이 남아 있다. 이 건물 역시 임진왜란때 소실된 것을 포정루와 함께 再建하였는데 당시에는 東軒 등 부속건물이 있었다. 정면 7칸 측면 4칸 팔작지붕의 겹처마 건물로 익공계 양식이다. 내부에는 네면에 內陣柱를 세워 한칸의 退間을 두었고 內陣柱列에는 세살문을 달았으나 후대에 변형이 있었다. 바닥은 모두 우물마루를 짜았고 천장은 연등으로 마감하였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호 ·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 17. 18. 일산동 석불좌상과 오층석탑 (一山洞 石佛坐像과 五層石塔)



이곳에는 五層石塔을 중심으로 좌우에 비슷한 모습의 불상 2구가 安置되어 있다. 원래 原州市 中央洞의 廢寺址에 있던 것을 日帝때 남산 추월대로 이전하였고 다시 1962년 5월에 강원 監營과 布政樓가 있는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이 二軀의 불상은 머리부분이 없어져 새로 보수한 것이어서 원래의 모습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현재 남아 있는 佛身만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단정한 체구, 세련된 형태, 通肩衣의 평행웃주름 등 新羅末의 毘盧舍那石佛樣式을 잘 따르고 있어서 적어도 高麗 初期의 수준작으로 생각된다. 깨어진 두손을 가슴에 모은 상태로 보아 智拳印임이 분명하므로 둘 다 비로자나석불상으로 추정된다.

五層石塔은 1층 基壇위에 쌓아 올린 5층의 塔身部로 구성되었는데 상당히 큼직한 기단부와 이 위의 적당히 遞減된 屋蓋石과 塔身이 얇고 평판적이어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으면서 경쾌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高麗時代의 일반적인 양식이어서 불상과 함께 이 당시 석탑양식의 수준작으로 평가된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5호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 19. 구룡사 대웅전 (龜龍寺 大雄殿)



新羅 文武王 6년(666) 義湘大師가 아홉 마리의 龍이 살고 있는 연못을 메우고 寺刹을 創建하여 「九龍寺」라 하였으나 朝鮮 中葉에 거북바위와 얽힌 緣由로 하여 「龜龍寺」로 改稱하였다고 전하며, 肅宗 32년(1706)에 중건되었다 한다.

대웅전은 前面으로 보아 기둥 위에 拱包(柱心包)를 두고 주심포 사이에도 空間包를 二組씩 배치한 多包系樣式이며 팔작지붕으로 되었다.

공포의 外部 諸工은 仰舌形이 중첩되었고 양설 윗몸에는 각각 연꽃을 彫刻하여 화려하게 裝飾하였으며, 내부 제공은 하나로 연결하여 唐草무늬를 草刻하였다. 특히 佛像 위에 있는 寶蓋는 中層으로 되어 특이하다.

천장의 중앙부는 우물천장을, 둘레에는 빗천장을 架設하되 연꽃과 鳳凰, 雲紋, 飛天像 등을 彩畵하여 錦丹青과 함께 매우 화려하고 장엄하다.

이 불전은 공포 내·외부의 장식적인 조각솜씨 및 構造手法 등으로 보아 1900년대 초에 建立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6년 보수 단청하였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4호 ·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 20. 상원사 석탑 및 불상 광배 · 대좌 (上院寺 石塔 및 佛像 光背 · 臺座)



이 두 탑은 9세기 중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新羅 下代 석탑양식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석탑이다.

二重基壇은 面石에 각각 1개씩의 撐柱를 새겼으며 3층의 塔身과 屋蓋石 역시 기단의 형태미와 조화되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1층 탑신의 섬약한 인상과 2·3층 탑신의 급격한 체감, 4단의 옥개석받침과 평박한 옥개석 지붕은 경쾌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양식의 석탑에 흔히 나타나던 부조상들이 생략되어 있어서 섬려한 인상보다는 實相寺 雙塔이나 寶林寺 雙塔 등과 비슷하게 섬세한 형태미를 강조하고 있다.

1964년 석탑보수 때 金銅으로 만든 菩薩像, 仁王像, 佛立像 2구 등 4구의 불상이 나와 이 탑의 성가를 더욱 높여 주고 있다.

탑 앞에는 金堂址에 있던 광배와 대좌의 上臺石이 놓여 있다. 광배에는 연꽃과 唐草紋을 浮彫하였고 그 테두리에 불꽃무늬를 새겨 세련된 수법을 나타내고 있다. 상대석은 仰蓮이 새겨진 八角臺座인데 한 면의 일부가 깨어졌다. 이들 광배와 대좌는 석불좌상의 것으로 생각되는데 석불상은 어디로 옮겨졌을 것이지만, 대좌나 광배의 양식으로 미루어 보면 新羅末 高麗初인 900년 전후의 우수한 불상이라 짐작된다.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5호 ·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 21. 22 용운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삼층석탑 (龍雲寺址 石造毘盧舍那佛坐像 및 三層石塔)



이 석불좌상은 光背만 없어졌을 뿐 座臺와 佛像이 완전히 남아 있는데 현실적인 부처의 모습이 잘 표현되었다. 육계가 불분명한 머리, 큼직큼직한 螺髮, 자연스럽게 미소짓는 현실적인 얼굴, 다소 움추린 듯한 상체, 結跏趺坐한 통통한 하체, 通肩의 佛衣에 표현된 빛은 듯한 계단식 옷주름이나 구불구불한 주름선 등에서 축서사 石造毘盧舍那佛像 등 新羅 末期 불상의 특징을 계승해서 造成한 高麗 初期의 불상특징이 보이며 智拳印을 짓고 있는 통통한 두 손, 사각형으로 구성된 3단의 대좌와 여기에 나타난 큼직한 연꽃무늬와 中臺의 안상무늬 역시 마찬가지로 신라말에 유행된 비로자나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계승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창작된 고려 초기의 우수한 비로자나불상으로 法身佛의 진리를 뭇 衆生들에게 깨우치고 있다.

三層石塔은 二重基壇에 각각 撐柱가 하나씩 표현된 전형적인 신라말기 석탑 양식을 계승한 고려 초기의 것으로 上臺 甲石 위에 마련된 蓮花무늬의 괴임돌은 고려 초기부터 유행한 독특한 것으로 연화무늬는 불상 座臺와 동일한 수법이다. 3층으로 구성된 塔身과 屋蓋石은 신라 말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2·3층 탑신의 급격한 체감과 4단의 옥개석받침과 더불어 고려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相輪部는 露盤과 覆鉢, 寶輪 등이 남아 있다. 이처럼 석불상과 석탑은 신라 말기의 섬세하고 단아한 불교의 理想的 美를 계승하여 自然主義적이고 화려한 고려의 불교미를 완성한 작품이다.

· 全高 1.65m 좌상높이 94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42호, 43호 · 소재지 원주시 호저면 용곡리



### 23. 봉산동 당간지주 (鳳山洞 幢竿支柱)



이 당간지주는 新羅 時代에 創建하였다고 전하는 天王寺址의 경내에 서 있다.  
1910년 「한일합방」 당시 한 쪽이 파손된 것을 1980년 4월 30일 復元하였다. 이 지주는  
그 文化財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1975년 6월 강원도 지방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되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9호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 24. 원주 태장동 왕녀복란태실비 (原州 台庄洞 王女福蘭胎室碑)



이 비는 朝鮮 成宗 17년(1486)에 세운 王女 福蘭의 태실비이다.  
조선시대에는 公主나 王子를 낳게 되면 長壽를 祈願하는 뜻으로 名山을 찾아 자리를  
잡고 그 곳에 태를 묻고 태가 묻힌 곳을 胎峰이라 불렀다.  
이 비는 碑臺·碑身·碑頭가 一石으로 되어 있고 비두는 蓮葉 1개를 썬 것처럼 조각  
되어 있다. 이 마을은 태가 묻혀 있다 하여 胎藏町으로 불리어지다가 1955년 台庄洞으로  
바뀌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6호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 25. 원주 봉산동 석조보살입상 (原州 鳳山洞 石造菩薩立像)



사람 키만한 等身大의 이 석조보살입상은 翼蟬冠 모양의 寶冠을 쓴 점이나 상체의 옷이 양복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장대같은 체구에 구름무늬 같은 하체의 옷주름 등 일반적인 보살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특이한 형태를 보여준다.

얼굴은 비만한데 비해서 눈, 코, 입이 작은데다 웃고 있어서 무척 친근한 느낌을 주는 인상이다. 오른손은 가슴에 대고 왼손은 배에 댄 手印인데 신체에 비해서 팔은 가늘고 손은 작아 조화되지 못한 수법이다.

이처럼 특이한 형태, 친근한 모습, 형식화된 세부표현 등으로 高麗菩薩像의 특징이 나타난 지방적인 보살상으로 이 지방 石佛流派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7호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봉산1동

## 26. 원주 봉산동 석불좌상 (原州 鳳山洞 石佛坐像)



이 불상은 座臺, 光背까지 모두 갖춘 완형의 석불좌상이지만 손이 깨어지고 얼굴은 떨어져 나가 무척 아깝게 되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둥글며 가슴도 비교적 넓고 앉아있는 모습도 안정되어 균형잡힌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팔이나 다리 등 신체 각부의 量感도 적당하며 탄력감까지 느낄 수 있어서 統一新羅 석불상의 특징이 잘 계승 진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通肩의 佛衣는 옷주름이 촘촘하게 모이고 일률적으로 평행된 이른바 平行密集衣紋으로 통일신라말에 유행된 특징과 유사하지만 다소 형식화되어 약간의 시대적인 차이를 느끼게 한다.

왼쪽 어깨에 가사를 고정시키던 고리 장식이 있어서 역시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광배는 舟形攀身光背로 꼭지로 갈수록 날씬하게 처리되었으며 頭·身光에 당초 무늬와 테두리에 불꽃무늬가 화려하게 표현되어 이 광배의 격을 높여준다. 座臺는 下臺가 묻혀 보이지 않으며, 中臺는 八角으로 八面에 天部像을 浮彫로 새겼고, 上臺는 仰蓮의 重葉單瓣蓮華紋인데 안에 꽃무늬가 화려하다.

이처럼 이 석불좌상은 新羅 下代 석불상의 특징을 잘 계승한 高麗 初期 석불상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8호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봉산2동



## 27. 원주 비두리 귀부 및 이수 (原州 碑頭里 龜趺 및 螭首)



이 碑石은 碑身은 없어지고 同一石으로 造成한 귀부 위에 이수만이 놓여 있다. 造成年代와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龜甲紋과 雲龍의 彫刻이 뛰어나다.

鶴城洞의 法堂을 세울 당시 옮겨 갔던 것을 1976년 비두리 주민의 건의에 따라 현 위치에 移轉管理하고 있다. 속칭 비두네미라 부르는 이곳은 옛날부터 질이 좋은 花崗岩이 많이 나와 石碑材料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현 居頓寺址내 勝妙塔碑를 세울 때에도 이 石材를 사용하였다고 전한다.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0호 ·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문막면 비두리

## 28. 원주 김두한 가옥 (原州 金斗漢 家屋)



木造瓦家인 이 가옥은 L자형으로 된 안채의 평면형식이 중부형인데, 건넌방·대청·안방이 한줄로 배치되고, 안방은 앞으로 한두 칸 더 나아가 그 끝에 부엌이 있는 모습이다. 사랑채는 이 안채 부엌과 연결된 형태로 마루방과 두 칸의 안채와 마주 보게 되어 있고, 사랑채 끝에 한단 낮게 대문과 헛간 등이 연결되어 전체 평면이 ㄱ자형으로 되어있다.

이 집은 原州牧使와 南原府使를 지낸 金坦行의 墓를 관리하기 위한 墓幕으로 건립된 것을 1936년 크게 보수하였으며, 1945년부터 현 소유자로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한다.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86호 · 소재지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 29. 원주 보문사 청석탑 (原州 普門寺 靑石塔)



청석탑은 粘板岩으로 建造된 것으로 新羅 末期에 비롯되어 高麗時代에 이르러 유행한 바, 현재 海印寺·金山寺 등 몇 곳에만 있는 희귀한 탑이다. 이 탑은 두 개의 基壇에 蓮華紋을 彫刻하였고, 塔身石에 梵字가 새겨진 것이 특이하다.

두개의 기단과 다섯 개의 屋蓋石 그리고 2,3,4층의 塔身만 원형대로 남아 있을 뿐 전체의 塔材가 원형은 아니다. 建立年代는 高麗時代 前期로 추정된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3호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 30. 원주 용소막 성당 (原州 龍沼幕 聖堂)



이 성당은 豐水院聖堂과 原州聖堂에 이어 세번째로 設立된 곳으로 풍수원성당의 전교 회장으로 있던 한석완이 高宗 光武 2년(1898) 原州本堂 소속 公所로 모임을 시작했다가 고종 광무 8년(1904) V.Poyaud神父가 初代 本堂神父로 부임하면서 독립된 성당이 되었다.

발족 당시 原州·平昌·寧越·堤川·丹陽 등 5개군에 17개의 공소를 관할하고 있었다. 敎會建物은 처음 초가였다가 P.Chizallet에 의해 현재의 벽돌건물로 건립되었다. 시잘레 신부는 신자들의 도움으로 中國人 技術者들을 써서 이 건물을 지었다.

성당건물은 전면 중앙에 돌출한 鐘塔을 둔 長方形 平面의 벽돌조로 벽체는 붉은 벽돌로 쌓고 버팀벽은 회색벽돌을 사용하였다. 窓의 형태는 모두 圓形 아치형이며 테두리를 회색벽돌로 裝飾하였다. 고딕양식을 변형시킨 소규모 벽돌조 성당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6호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 31. 원주 영원산성 (原州 鵝原山城)



이 城은 雉岳山의 남서쪽에 있는 石築 山城으로, 新羅 文武王 혹은 神文王 때에 쌓았다고 전해온다. 또 後三國의 혼란기에 梁吉과 弓裔가 이곳에 거처하면서 인근 고을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記錄에는 영원성이라 하여 둘레가 3,749尺이며, 성안에 우물 하나와 샘 다섯개가 있었다고 하였다. 外敵의 侵入이 있을 때에는 原州와 이웃고을 주민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지키는 곳으로, 치악산의 서쪽 중턱에 있는 金臺山城이나 海美城과 서로 의지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치하여 있다.

둘레가 4km에 달하고 다듬지 않은 돌덩이를 차곡차곡 쌓아올린 모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어 옛 接戰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특히 高麗 忠烈王 17년(1291) 元나라의 哈丹賊이 침입하였을 때, 鄉貢進士로 別抄軍에 소속되었던 元沖甲이 원주의 백성들과 함께 적군을 물리친 유서깊은 전쟁터이다. 또 壬辰倭亂 때에도 原州牧使 金梯甲이 이곳에서 抗戰하다가 殉死한 곳으로서도 유명하다.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7호 ·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 32. 황장금표 (黃腸禁標)



이 금표는 黃腸木 封山(널빤지로 사용하는 품질좋은 큰 소나무가 있는 국가 지정 보호 국유림)의 경계표시로서 황장목 禁養(궁중용재 보호)을 위하여 일반인의 도벌을 금지하는 경고표시로 설치된 것이다.

雉岳山은 질이 좋은 소나무가 많은 뿐 아니라 江原監營이 가까와 관리에 유리하며 漢江 上流에 자리하여 뗏목으로 漢陽까지의 운반이 편리하여 朝鮮 初期에는 전국 60개소의 황장목 봉산 가운데서도 이름난 곳의 하나였다.

· 강원도 기념물 제30호 ·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2리

### 33. 원주 법천사지 (原州 法泉寺址)



原州市 富論面 鳴鳳山 기슭에 위치한 法泉寺의 옛 터이다. 寺址에는 법당 등 건물이 남아 있는 것은 없으며, 석조물로 高麗 宣宗 2년(1085)에 건립된 높이 5.54m의 法泉寺 智光國師玄妙塔碑(국보 제59호) 1기와 法泉寺 幢竿支柱, 그 밖에 石塔材·破佛 등 일부가 遺存되고 있다.

옛 법천사 경내였을 것으로 믿어지는 주변 일대에는 민가가 들어서고 대부분 농경지로 변했으며, 곳에 따라 部落의 민가 안에 長大石 石築을 볼 수 있다.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統一新羅時代에 세워져 高麗時代에 크게 융성한 사찰로서, 高麗中期 佛教의 兩大敎團이었던 法相宗과 華嚴宗 중 法相宗(唯識宗)系의 사찰이었다. 특히 智光國師 海麟(984~1070)이 初年에 修學하고 末年에 入寂한 곳으로 이 때가 전성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 초기 학자인 泰齋 柳方善이 이 절에서 講學을 하니 학업을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며, 權攄, 韓明澮, 康孝文, 徐居正 등의 학자들이 이 곳에 모여 시를 읊어 詩文을 남겼다고 한다.

강원도 기념물 제 48호 소재지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 34. 원주 상원사 대웅전 (原州上院寺大雄殿)



上院寺는 원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오늘날까지도 雉岳山이란 山名이 있게 한 유서 깊은 절이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전각이 최근에 신축된 것이어서 창건 당시의 전체 가람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대웅전 앞에 나란히 남아 있는 27기의 석탑으로 신라시대의 쌍탑식 가람임을 추측케 할 뿐이다. 현재의 건물은 1968년 당시 주지인 宋文永 法師와 女信徒 義成에 의하여 重建 復舊된 것이다.

대웅전은 정면 3칸(8.4m), 측면 2칸(5.3m)의 겹처마, 팔작지붕에 다포집이다. 법당의 불상은 새로 봉안한 것이며 두공부에 龍頭의 조각이 있다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 118호      소재지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 35. 입석사 석탑 (立石寺 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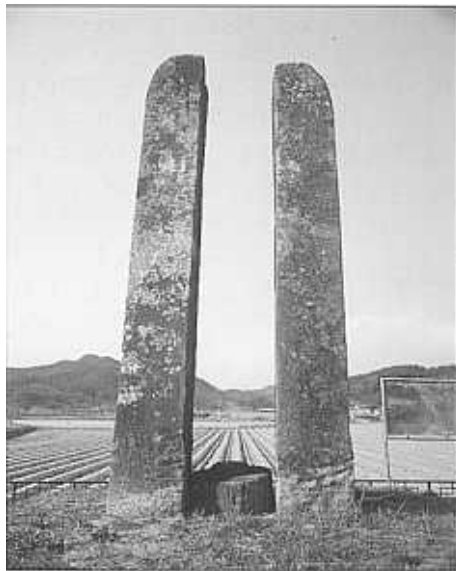


이 탑은 朝鮮 太宗(1400~1418)이 즉위한 후 어린 시절에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 耘谷 元天錫을 자주 불렀으나 응하지 않고 雉岳山에 들어가 은둔생활을 하며 나타나지 않으므로 태종이 그를 생각하며 세운 탑이라고 전한다.

현재는 石塔의 각 部材를 쌓아 올린 것인데 二基의 석탑 부재가 아닌가 한다. 두툽한 方形의 蓮華臺石이 2석이고, 얇은 연화대석이 1석, 각면에 양쪽 隅柱가 模刻된 塔身石이 3석, 방형의 板石이 4매석인 점으로 보아 그렇게 추정된다. 연화문이나 탑신석들의 治石 手法로 보아 高麗時代 作品으로 추정된다.

·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

### 36. 법천사지 당간지주 (法泉寺址 幢竿支柱)



法泉寺는 統一新羅時代에 세워진 사찰로 고려시대에 크게 융성했던 華嚴宗系의 大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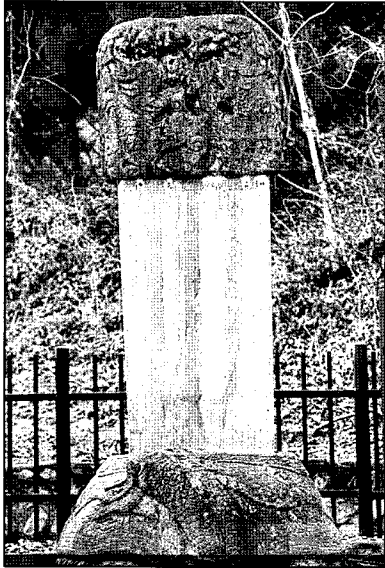
지금은 사찰 경내였을 것으로 믿어지는 주변 일대에 민가가 들어서고 그 밖의 지역은 농경지로 변해있다. 이 幢竿支柱는 寺址 남쪽 밭 가운데 위치하며, 높이 3.9m의 중형 당간지주이다.

표면에는 별다른 조각장식이 없으며, 상단 안쪽에는 幢竿을 고정시켰던 長方形의 杆構가 있다.

밑에는 두 支柱 사이에 당간을 받치기 위해 둥글게 다듬은 竿臺가 놓여 있다. 고려시대 전기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며, 북쪽에는 유명한 法泉寺 智光國師玄妙塔碑(國寶 第59號)가 보존되어 있다.

·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 37. 김제남 신도비 (金悌男 神道碑)



이 비는 朝鮮 宣祖의 繼妃인 仁穆王后의 아버지로 延興府院君에 封해진 金悌男(1562~1613)의 신도비이다. 김제남은 光海君 5년(1613)에 永昌大君을 추대하려고 한다는 무고로 잡혀 賜藥을 받고 세 아들과 함께 화를 당했다. 濟州島에 流配되었던 며느리 鄭氏와 孫子 天錫이 仁祖의 특명으로 김제남의 祠堂을 짓고 이 비를 세웠다.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21호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 38. 주포리 삼층석탑 및 마애불상 (周浦里 三層石塔 및 磨崖佛像)



黃山寺址로 알려진 이 절터 경내에는 三層石塔이 남아있고 이곳에서 1km 떨어진 뒷산에 磨崖佛이 彫刻되어 있다.

삼층석탑은 경내에 흐트러진 石塔材들을 모아 다시 세운 것인데, 基壇은 없어지고 3층의 탑신부만 있으며 相輪部에는 寶珠만 남아있다. 탑신은 兩隅柱를 표현하였고 이 탑신 위에 두꺼운 屋蓋石을 얹었는데 옥개석 받침은 3단이다. 落水面이 급경사를 이루고 탑신 받침이 약화되었으며 옥개석에 비해서 탑신이 細長한 것으로 보아 高麗때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磨崖佛은 彌勒山 정상에 암벽에 새겼는데, 네모진 얼굴에 눈·코·입·귀 등을 크고 土俗的으로 묘사하였다. 낮은 육계에 素髮머리, 通肩의 法衣 등을 얹게 浮彫한 점, 머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네모진 體軀, 치졸한 팔이나 손의 형태 등은 토속적이며 圖式化된 면과 더불어 高麗石佛의 地方化된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22호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주포리



### 39. 원주 흥법사지 (原州 興法寺址)



興法寺는 新羅時代에 창건된 사찰이었으나 지금은 없어졌고, 寺址에는 興法寺址 三層石塔과 眞空大師塔碑의 龜趺와 螭首가 남아 있을 뿐이며, 사찰터 주변 일대는 농경지로 변했다. 《高麗史》世家 太祖 23年條에 ‘王師忠湛死樹塔于原州靈鳳山興法寺親製碑文’이라는 기록이 있다. 忠湛은 眞空大師의 俗名으로 신라 때 사람인데, 唐나라에 가서 수도하고 돌아와 高麗 건국 후 太祖의 왕사가 되었다. 太祖 23년(940)에 입적하자 태조가 비문을 親撰하였다고 하였으나, 고려 초기에 이미 이 곳에 흥법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곳에는 廉居和尚浮屠(寶物 第549號), 眞空大師浮屠(寶物 第365號), 眞空大師塔碑(寶物 第463號) 등이 있었으나, 1931년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로 일본에 반출되었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 현재 이 곳에는 興法寺址 三層石塔(寶物 第464號)과 眞空大師塔碑의 龜趺 및 螭首만이 옛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45호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 40. 원주향교 (原州鄉校)



원주향교는 맨 안쪽 중앙에 대성전, 그 좌우에 동·서무를 배치하고, 대성전 앞에 명륜당을 두고 명륜당 앞쪽 좌우에 동·서재를 배치하였으며, 동재 옆에 守僕室을, 명륜당 앞에 外삼문을 배치하였다.

원주향교 건물 구성은 1734년 건립된 대성전(3×3, 맞배지붕, 26.0평), 명륜당(1609년 건립, 21.0평), 동무(11.0평), 서무(11.0평), 동재(1602년 건립, 4×2, 맞배지붕, 13.15평), 서재(1602년 건립, 4×2, 맞배지붕, 13.22평), 외삼문(1839년 건립, 4.0평), 수복실(10.0평) 등이다.

원주향교의 창건은 고려말이라고 전하고 있으나 고증된 것은 아니다. 전하는 문헌 및 기록으로는 상량문(1609년), 명륜당상량문(1749년), 향교중수기(1839년), 원주군문묘중수기(1923년), 원주향교중수기(1987년)가 있다. 창건 당시의 위치는 현재의 향교터로 추정되고 있다.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98호 ·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255

#### 41. 전통자기도공 장송모 (傳統磁器陶工 張松模)



도자기 제작기술 기능보유자인 張松模는 30여년의 자기제작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들어내는 작품은 청자·백자·분청사기·청동회청토기 등으로 전통자기 전반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기술 또한 우수하다.

장송모가 제작한 청자는 고려청자의 기형과 문양을 모방하였으나 전통미의 재현을 위한 연구는 심화되어 있고, 분청사기는 기법상의 지엽적인 측면을 살렸으나 박력있고 활달한 성격은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백자는 본인이 도공에서 나아가 화공을 겸한 훌륭한 작품을 다수 제작하고 있다. 특히 청동회청토기는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주 치악산에서 나는 회청사토와 전국에서 반입된 우수한 고령토를 배합하고, 청동에서 채집한 녹분의 회와 토질의 성분이 爐의 화재 속에서 용융된 膜이 자연 발색되어 광택이 없어지고,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반점이 생겨 독특한 빛깔을 띠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장송모는 1973년 원주에 朝鮮陶窯를 설립하고 전통자기 전반에 관한 연구를 해 왔으며, 1983년 전국민예품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6호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원동

#### 42. 교항리 암각 공양 보살상 (橋項里 巖刻 供養 菩薩像)



原州市 所草面 橋項里 절골의 佛頭가 있었던 곳에서 동쪽으로 산기슭에 암벽 하나가 솟아 있는데 이 암벽에 보살좌상 1구가 線角되어 있다.

높이 3.7m, 넓이 6.2m 크기의 암벽에 가득히 조각하였는데 보살의 높이는 3.5m이다. 이 보살은 측면상으로서 머리에 보관을 썼는데 하단에 좌우로 관대가 보인다. 菩薩髮의 표현이 부드러우며 相好는 원만한 상으로 양미안과 비랑 등은 잘 남아 있으나 입은 파손되었다. 三道가 둘러지고 天衣는 편단하였으며, 오른발을 구부려서 앉고, 왼발은 직각되게 펴서 왼손을 받치고 있다. 각부의 조각수법으로 보아 조성연대는 고려 전반기로 추정된다.

이 菩薩立像에서 특이한 것은 왼손을 넓게 펴고 그 위에 연꽃 등의 공양물을 올려 놓아 오른손으로 이것들을 잡고 있는데, 이러한 형상은 흔한 것이 아니다.

비지정 · 소재지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 43. 교항리 석조불두 (橋項里 石造佛頭)



原州市 所草面 橋項里의 龜龍寺로 가는 다리목 도로변에 있는 佛頭로 임진왜란 때 왜병을 격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전설이 전한다. 큼직한 화강암 바위 위에 佛頭 하나만이 놓여 있는데 원래는 평장리와 교항리의 경계언덕에 있었으나 1992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이곳에 옮겨졌다.

현재 全高는 1m, 폭 1.05m, 두께 50cm 규모의 佛頭로 이마에는 白毫가 있고 둥근 얼굴에 명확한 선을 나타내고 있다. 두 귀는 목 부분까지 길게 느리워져 있으며 입술은 다소 투박하며 굳게 다물고 있다. 양미안과 콧날은 정제되었으며 목에는 三道の 흔적이 있다. 전체적으로 조각수법은 졸속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감정은 그런대로 불상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佛頭는 원위치의 암벽에 胴體를 조각하고 그 위에 머리 부분만을 圓刻하여 올려 놓았던 것이나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묻혀버렸다고 한다. 相好 각부의 조각양식수법으로 보아 조성연대는 고려 전반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형의 佛像은 坡州 龍尾里 石佛立像(보물 제93호)과 安東 泥川洞 石佛像(보물 제115호)등의 형태에서 同一함을 볼 수 있는데 이 곳 교항리 불두도 그 본래의 암벽이 4m×5m 규모인 점으로 보아 초기에는 장대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비지정 소재지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 44. 입석사 마애여래불상 (立石寺 磨崖如來佛像)



原州市 所草面 興陽里 산1번지의 立石寺 위에 있는 立石臺로부터 서북방 약 30m 지점의 岩壁에 있는 坐像으로 立石寺에서는 가장 오래된 石造物이다. 立石臺 바위에는 많은 수의 이름이 각자되었고 아래에는 근래에 신축된 대웅전과 산령각이 있으며, 그 아래에 요사채가 있다. 立石寺址는 처음에 신라 義湘大師가 이 곳에 土窟을 짓고 修道했다는 口傳이 있을 뿐 다른 문헌이 없어 절의 내력을 알 수 없다.

佛像의 總高는 86cm, 頭高는 24cm, 어깨 폭이 40cm이며, 뒷쪽에는 頭光과 身光을 나타냈고 結跏趺坐하고 있다. 하단부에는 單葉의 仰蓮으로 된 蓮花臺를 받치는 坐臺를 陰刻하였다. 머리부분은 완전히 陽刻되었고 아래는 線刻으로 나타냈다. 머리는 螺髮이며 풍만한 얼굴은 잘 조화되어 있다. 法衣는 양쪽 어깨를 덮은 通肩이며 手印은 오른손을 가슴에 들고 왼손은 복부에 가볍게 놓았다. 특히 오른손을 들어 결인한 모습은 사실적으로 잘 처리되었다.

결기부작한 오른발은 법의 밖으로 들어내 線刻을 보이며 法衣의 衣褶 등의 처리가 단조로운 점 등은 古式을 따르고 있으며, 목에 세줄의 주름을 나타내는 三道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3.1m 높이의 암벽에 금이 가고 불상 자체에도 마손이 심하여 각부의 조각을 상세히 살필 수 없음이 유감이다. 각부의 양식이나 조각수법으로 보아 조성연대는 고려초반으로 추정되며 仰蓮座를 구비하고 원형의 頭光까지 갖추고 있어 주목된다.

· 비지정 소재지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

---

#### 45. 수암리 마애삼존불 (壽岩里 磨崖三尊佛)



이 삼존불상은 수암리 절터로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규모가 제법 큰 한 무리의 바위를 만나게 된다. 풍상의 흔적이 역력한 바위는 표면이 거칠은 화강암으로, 동남쪽 한 면을 적당히 다듬어 높이 205cm, 너비 92cm 규모의 불상을 새겨 놓았다.

부피감 없이 선으로만 처리된 이 線刻 마애삼존불상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연꽃대좌 위에 앉아 있는 중앙의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입상의 협시보살을 배치한 삼존불 형식을 취하고 있다. 비교적 유려하고 힘있는 선으로 조각된 삼존불 중 가운데의 본존불과 오른쪽의 협시보살은 상호만 마멸되었을 뿐 두광과 신광, 그리고 삼도의 흔적과, 법의 자락이 뚜렷하게 남아 있으나, 왼쪽의 협시보살은 두광과 법의 자락 일부만이 남아 있어 전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다.

전체적으로 살이 쫄 탄탄한 체구와 힘이 넘쳐나는 듯한 조각 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불상양식을 보이고 있다.

· 소재지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

#### 46. 매지리 석조보살입상 (梅芝里 石造菩薩立像)



이 보살입상은 高麗時代 逸名寺址에 있던 것을 이 부근에 옮겨 놓았다가 세월이 흘러 하천 속에 묻혀 있던 것을 저수지 신설공사 때 찾아 세운 것으로 조각은 일반 미륵 양식이며 정교한 모양은 아직도 磨滅되지 않은 채 잘 보존되어 있다.

· 소재지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 47. 신선암 석조보살입상 (神仙庵 石造菩薩立像)



神仙庵 입구에 세워져 있는 이 菩薩立像은 높이 1.7m정도이며, 좌대는 0.5m정도로 시멘트를 이중으로 쌓아 기단을 삼았다. 본래는 철로변에 있는 천주교 공동묘지에 있던 것을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고 한다.

頭髮은 고깔모양의 翼蟬冠을 쓰고 있으며 눈과 코, 입은 마멸이 심하다. 얼굴은 풍만한 편이고, 목에는 三道가 있다. 왼손은 자연스럽게 내려 法衣를 쥐고 있고 오른손은 가슴에 두었다. 法衣는 양어깨를 덮은 通肩으로 가슴 아래에서 U자형태를 하다가 허리부분에서 다시 양편으로 갈라져 있다.

이 보살입상은 다소 파손이 되었으나 크기나 조각에 있어서 우수한 수법을 나타내고 있다. 양팔을 타고 내린 法衣는 다소 무거운 느낌을 주며 厚德한 얼굴과 풍부한 느낌에서 고려 초기의 유물로 추정된다. 현재 무릎 밑부분이 땅에 묻혀 있으며, 제작시기나 본래의 위치 등에 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비지정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봉산2동 산38

#### 48. 부흥사지 석탑재 (富興寺址 石塔材)



현재 남아있는 부재는 하층기단과 상층기단 면석 일부, 옥개석 2석과 탑신석 1석 뿐이다. 기단부재에서 주목되는 것은 八部神衆像이 조각되어 있는 점이다. 즉 각면에 양우주와 탕주가 있어 1면에 2軀씩의 神像을 배치하였다는 것이다. 탑신에는 양우주가 있고 옥개석받침은 4단이다. 기단갑석 상면은 舍角線이 뚜렷하다. 이 석탑은 神像의 조각과 탑신부의 짜임으로 보아 고려 초반의 건립으로 추정된다.

· 비지정 소재지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 165

#### 49. 일산동 석탑재 및 불상 (山洞 石塔材 및 佛像)



이 곳의 석조물은 석탑과 석불의 각 부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석탑은 기단갑석(한 변의 길이 1.2m), 탑신석(한 변의 길이 52cm, 높이 53cm), 옥개석(한 변의 길이 92cm) 등의 부재이며 석불은 좌상(높이 107cm)과 원형연화대석(직경 91cm) 등인데 본래 어느 절터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석탑이나 석불에서 풍기는 조성양식을 보면 모두 고려시대 전반기의 조성으로 추정된다. 특히 탑신석은 양우주가 정연하고 사방에는 사천왕상이 두드러지게 양각되어 주목된다. 이 밖에 기단면석에도 조각이 있으며 방형의 연화대석 1석이 있는데 불상대좌의 부재로 추측된다. 이들 석부재는 제일 감리교회 앞마당에 보존되어 있던 것을 이 곳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한다.

비지정 소재지 원주시 일산동 54-2

#### 50. 서곡리 석탑재 (瑞谷里 石塔材)



瑞谷里 寺址가 있는 곳은 현재 논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이곳을 주민들은 '탑거리' 라고 한다. 현재 이곳에서는 상당량의 塔部材가 출토되었고, 이외에도 후리절橋 좌측에는 屋蓋石 2개와 隅柱·撐柱가 있는 塔身石, 그리고 仰蓮이 새겨진 佛座臺가 있다. 민가 안에도 4면에 隅柱가 있고 한 면에 자물통 문양이 있는 塔身이 있는데, 舍利孔을 돌절구로 쓰기 위해 구멍을 더 크게 뚫어 놓은 것으로 보여진다. 후리절 마을 아래 중촌의 서낭당에도 基壇部 塔材가 1基 있는데, 길이는 3m 정도이며 隅柱가 보인다. 이상의 塔部材는 모두 '탑거리' 에서 출토되었다고 한다. 각각의 塔部材의 규모로 보아 塔의 규모는 상당히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탑거리' 주변에는 무수한 기와편이 산재하고 있다.

비지정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409



## 51.52. 천수사 오층석탑 및 삼층석탑 (泉水寺 五層石塔 및 三層石塔)



국립중앙박물관(경복궁) · 원위치 원주 천수사

이 탑은 강원도 원주 천수사 절터에서 일제 강점기인 1916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경북 궁으로 옮겨 세워진 후 1990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탑의 형태는 5층으로 基壇部의 下臺甲石 아래는 현재 결실되었다. 塔身과 屋蓋石은 각각 한 개의 돌로 되었고 옥개석의 네 모서리에는 風鐸을 단 흔적으로 보이는 작은 구멍이 네 개씩 남아 있다.

탑신의 높이는 2층부터 급격히 낮아져 있고 옥개석 밑의 받침은 각 층 모두가 3단을 이루고 있다. 相輪部는 현재 남아 있지 않으며 석탑각부분의 결손이 심한 高麗末期의 석탑이다.

석탑의 基壇部는 통일신라 석탑에서 보이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기단의 面石에는 隅柱와 撐柱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1층 탑신과 2층 탑신 아래 별도의 받침괴임이 놓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屋蓋石의 落水面은 거의 수평을 이루고 옥개석과 탑신은 각각 하나의 돌로 이루어졌으며 옥개받침은 4단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보여 주고 있는 14세기경의 高麗石塔으로 相輪部는 현재 方形 露盤만 남아 있다.

## 53. 충효사 (忠孝祠)



소재지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이 사당은 副司果 忠孝公 黃戊辰(1568~1652)을 봉안한 곳이다. 황무진의 본관은 昌原이며, 자는 子龍, 호는 碧龍潭이다. 檜山府院君 黃石奇의 九世孫으로 원주시 봉산1동 무진 고개 너머에서 태어났고 그 곳에서 자랐으나 가세가 빈곤하여 문막면 반계리에 있는 골무 내기 마을로 옮겨서 평생을 살았다. 부친을 일찍 여의고 모친을 모시고 살면서 효성이 지극하여 하늘이 낸 효자(出天之孝子)라는 칭송을 받으며 살다가 1627년 丁卯胡亂 때에 四寒 金昌一, 觀雪 許厚 등과 함께 의병활동을 하여 그 功으로 折衝將軍行龍 驤衛 副司果에 봉해졌다. 그 후 1634년(인조 12)에 그의 효성을 찬양하기 위해 나라에서 명하여 旌門을 그의 집앞에 세우게 하였다고 하며, 효종 3년 85세로 추하자 시호를 충효공이라 하고 그 이듬해에 다시 孝子旌門을 세우게 하였다. 후에 사당을 건립하도록 하고 刻板과 懸板, 祭器 등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忠孝祠扶助座目」에 의하면 사당은 그가 죽은지 69년 후인 1721년(景宗 1)에 건립되었으며, 후에 여러 차례 重修하였다. 본래 이 사당은 향교내에 건립되었던 것을 1965년 현재의 위치로 이관하였다고 한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익공집이다.

## 54. 경현사 (景賢祠)



· 비지정 · 소재지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이 공산마을의 景賢祠는 1965년 건립되었다. 이 곳에 많이 거주하는 秋氏 집안에서 陽智秋氏의 시조인 고려 충렬왕 때의 문신 露堂 秋適의 영정을 봉안하였다.

이 祠宇에 봉안된 露堂은 한문교양서인 『명심보감』을 편찬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고려 충렬왕때 과거에 급제하여 安東書記·直史館·左司諫을 지냈다. 그 후 1298년(충렬왕 24) 환관이었던 黃石良이 권세를 이용하여 자신의 故鄕인 舍德部曲을 縣으로 승격시키려고 할 때 서명을 거부하여 황석량의 무고로 巡馬所에 투옥되었다. 석방되어 북계 龍州의 수령을 지냈다. 충렬왕 말년에 安珣에 의해 발탁되어 7품이하의 관리나 생원들에 대한 유학교육을 담당하였고, 후에 승진하여 예문관제학을 지냈다.

경현사는 공산마을 안쪽의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곳에는 치악산 비로봉이 눈앞에 바라다 보인다.

현재 이 곳에는 '瞻學齋'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건물과 그 후면에 露堂 秋適의 影幀을 봉안한 景賢祠가 있다. 첨학재 건물은 신축 당시에 江原 監營의 內三門과 重三門을 철어다가 지었다고 한다.

## 55. 영정각 (影幀閣)



· 비지정 · 소재지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松谷 李瑞雨(1633~?)를 봉안한 사당으로 정확한 건립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肅宗代에 건립된 것으로 『朝鮮 襄興勝覽』에 기재되어 있다.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羽溪, 자는 潤甫, 호는 松谷이다.

松谷의 影幀閣은 정산리에서 염태고개를 넘어 丹江初等學校쪽으로 가다가 學校에 이르기 약 200m 전에 좌측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다. 이 道路를 따라 약 1.2km 가다보면 작실마음이 나타나는데 이 마을의 도로변 약 50여미터에 위치하고 있다. 影幀閣 주변은 田地이며, 바로 뒷쪽에는 古木이 한 그루 서 있다.

영정각은 正門과 「影幀閣」이라는 현판이 걸린 祠堂으로 되어 있으며 주위는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다. 影幀閣은 1700년대에 건립되었던 것을 최근(1968年度)에 改築하였다.



## 56. 산현리 태실 (山峴里 胎室)



산현리 태실은 장현교를 건너 우측의 산현초등학교 방향으로 도로를 타고 약 0.7km 정도 가면 왼편으로 있는 작은 산봉우리에 있다. 이 小峯은 昭君山의 한 지맥이 흘러 내려와 평지부근에서 가라 앉았다가 다시 약간 솟은 봉우리로 전면에는 장현천이 가로 질러 흐르고 있다.

碑石 前面의 刻字는 육안으로는 거의 확인이 안될 정도로 마멸이 심하며, 전문판독은 되지 않으나 후면의 상태는 전면보다 양호하여 刻字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다.

비문에 의하면 이 태실의 주인은 「萬曆 28年」 즉 1600년에 출생하였고, 태실비는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이듬해 4월 25일에 세워진 것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영창대군의 태실이라고 하나 영창대군은 「丙午生」(1606년)이므로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만력 29년은 「선조 34년」(1601)으로 이 태실의 주인은 1600년 경에 출생한 宣祖의 王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宣祖의 자녀 24명중(王子 13명, 公主 1명, 翁主 10명) 1600년(庚子年)에 출생한 溫嬪 韓氏 소생인 慶平君의 태실로 추정된다.

이 마을 주민에 의하면 이 태실은 약 20년전 도굴꾼들에 의해 석함과 덮개돌이 열린채 파헤쳐져 있었으나 1996년에 원주환경운동연합에서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해 놓았다.

· 비지정 소재지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 57. 숙정 · 숙휘공주 태실 (淑靜 · 淑徽公主 胎室)



운산태실로 알려진 이 태실은 흥업면 대안 3리에서 노루재로 넘어가는 쪽으로 약 1 km 정도 떨어진 오뚝한 작은 봉우리에 있다. 이 小峯은 鳴鳳山(598m)에서 이어지는 山脈의 하나인 554고지에서 이어지는 곳으로 봉우리 정상에 2개의 봉분과 2기의 태실비가 있다.

태실비의 비문으로 보아 이 태실의 주인은 효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인 1642년(인조 20)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이 태실비는 출생 당시가 아닌 후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淑靜公主 태실비 후면의 기록으로 볼 때, 「成豐 5年」인 哲宗 6年(1855)에 다시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태실은 도굴되어 석함이 방치되고 파손되어 있었던 것을 1993년 금물산클럽에서 복원해 놓았다.

· 비지정 소재지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 58. 금대산성 (金臺山城)



금대산성은 현재 금대리 국립공원매표소에서 바라다 보이는 산의 해발 500~627m 에 쌓은 산성으로 그 모양은 아메바와 유사하다. 영원산성이 자연석을 그대로 쌓은 것과는 달리 금대산성은 대개 정방형으로 治石하여 정연하고 견고하게 쌓은 것이 특징이다. 완전한 석축이 남아 있는 곳이 많으며, 동문지 우측에는 높이 190cm, 가로 390cm 정도의 석축이 남아 있다. 석재의 크기는 대개 높이 10~25cm, 가로 25~60cm 정도이다.

이외에도 부근에 높이 270cm, 길이 530cm, 높이 270cm, 길이 150cm 되는 석축이 남아 있으며 특히 서문지 부근에는 60~70m씩이나 석축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서문지의 넓이는 250㎡이며, 오른쪽으로 430cm의 석축이 완전히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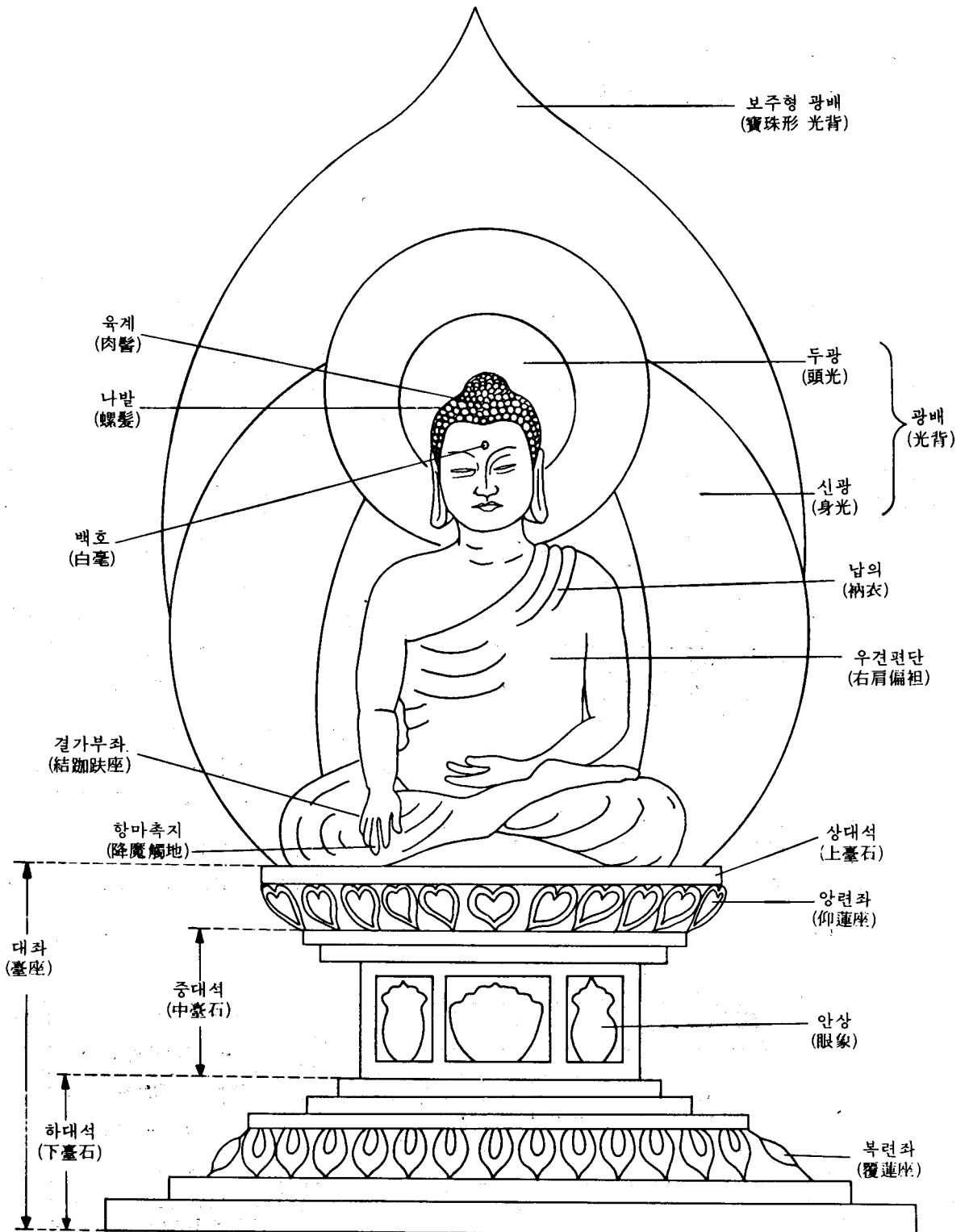
門址가 있는 곳의 앞은 대개 평평한 지역이 있고 안쪽과 좌우에는 대개 建物址로 보이는 터가 있다. 남문지에는 특이하게 세로 60~63cm, 가로 260cm, 두께 15cm 정도의 石部材가 가로 놓여 있는데, 석재에는 18cm×18cm, 19.5×14cm 깊이 약 2cm 크기의 홈이 파여 있는데 성문에 사용된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또한 남문지 위쪽에는 古墓가 여러 개 있는데 이 가운데 3基의 묘는 조선시대의 墳墓로 추정되며, 특히 1기는 상석과 축대를 갖추고 있으나 비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자리에는 구덩이만 있는 것으로 보아 유실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표시는 없어 누구의 묘인지 알 길이 없다.

· 비지정 · 소재지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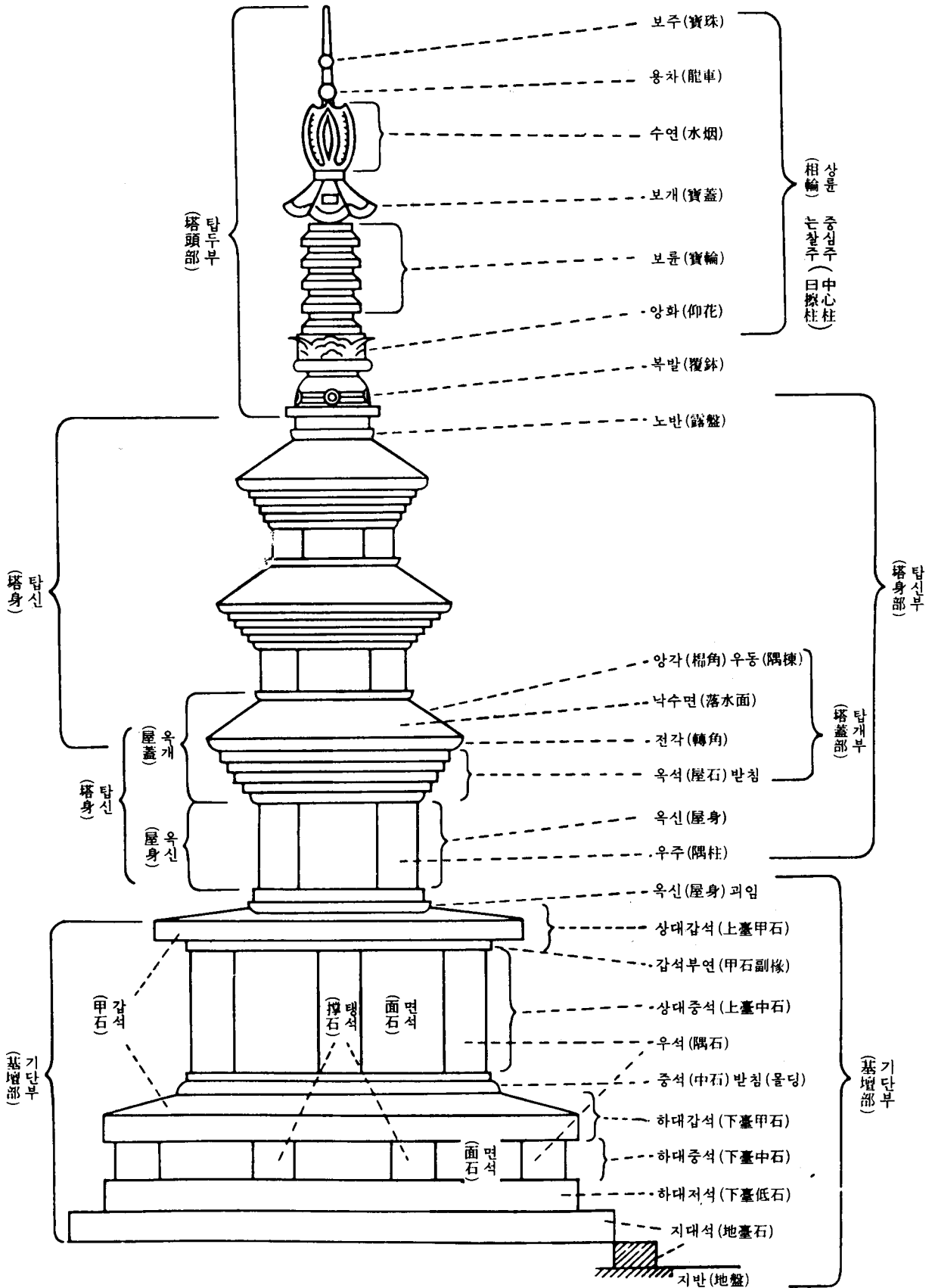
## 文化財部分名稱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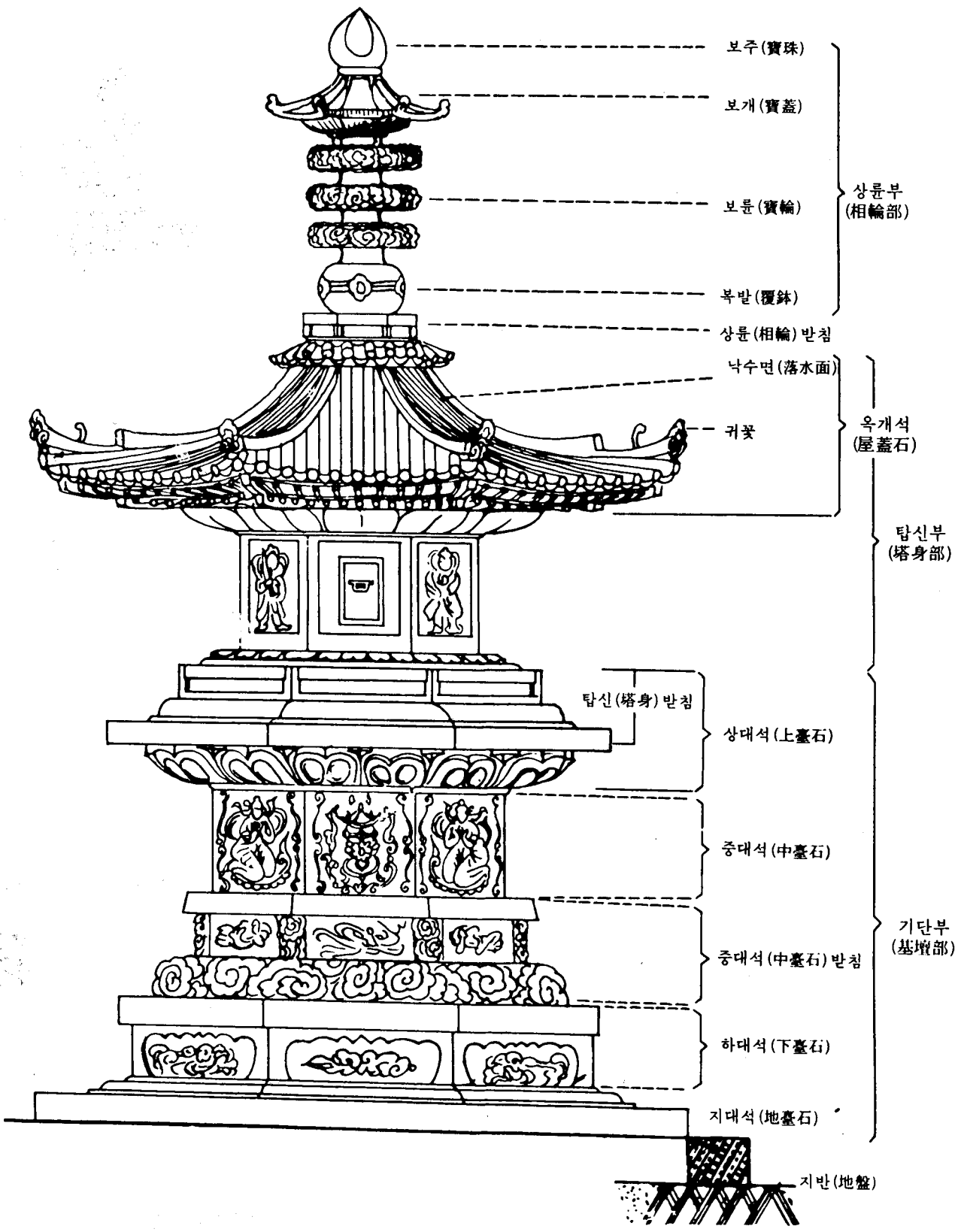
# 佛像의 各 部分 名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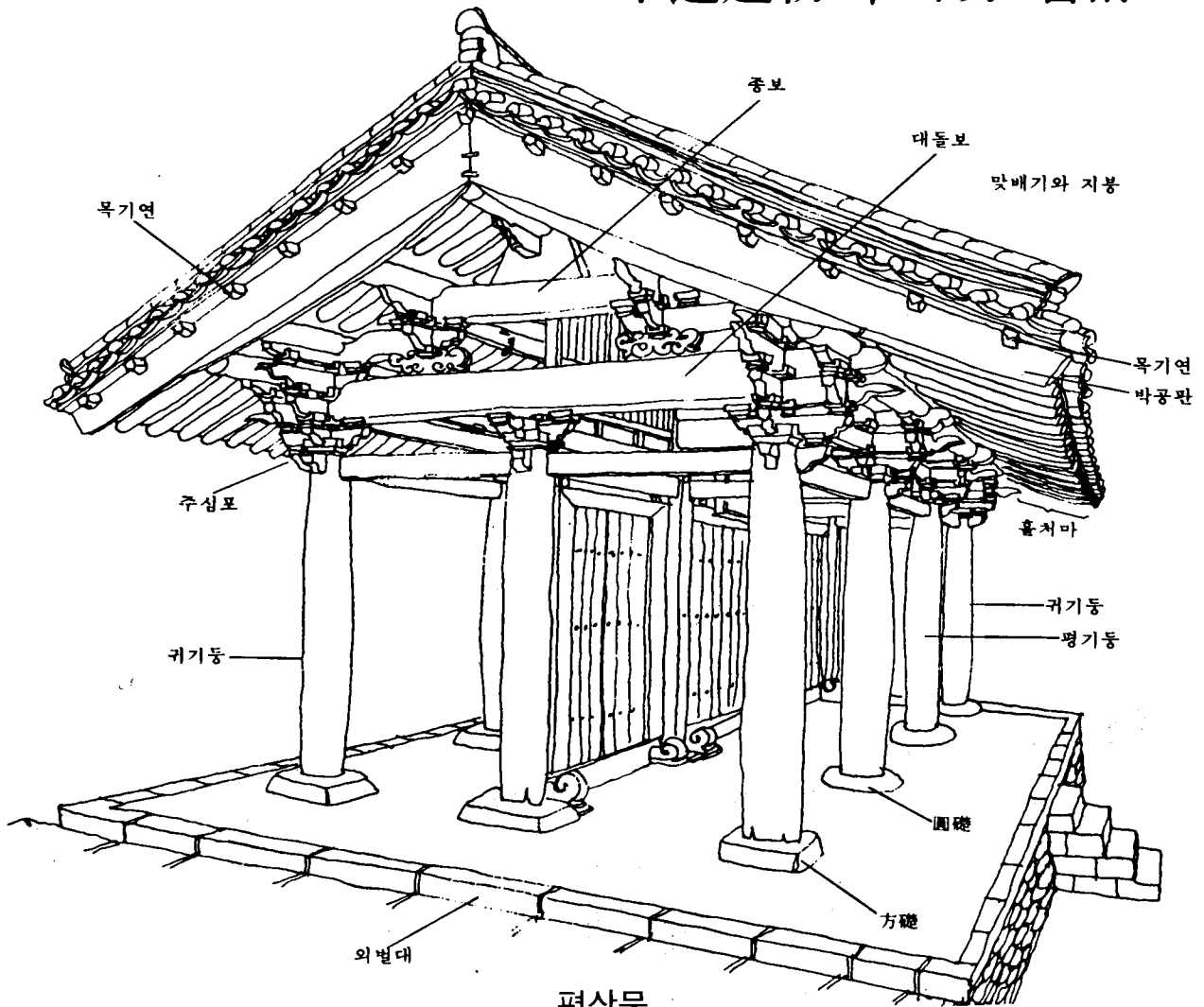
# 石塔의 部分 名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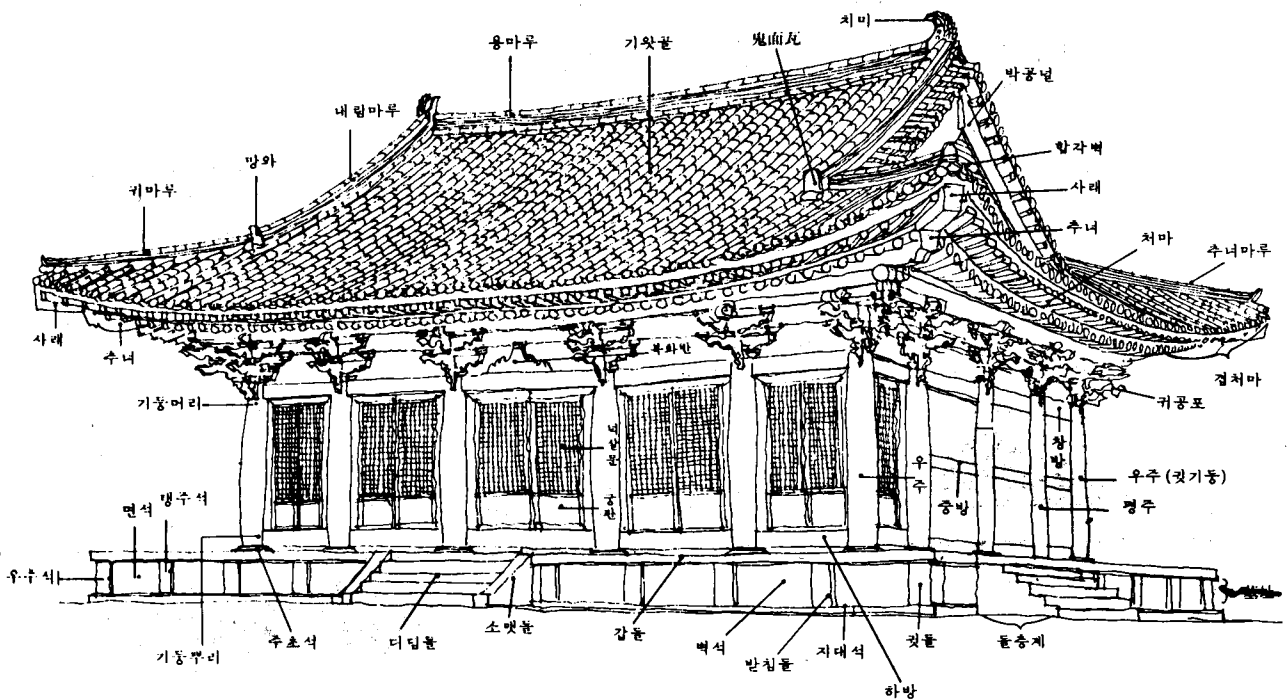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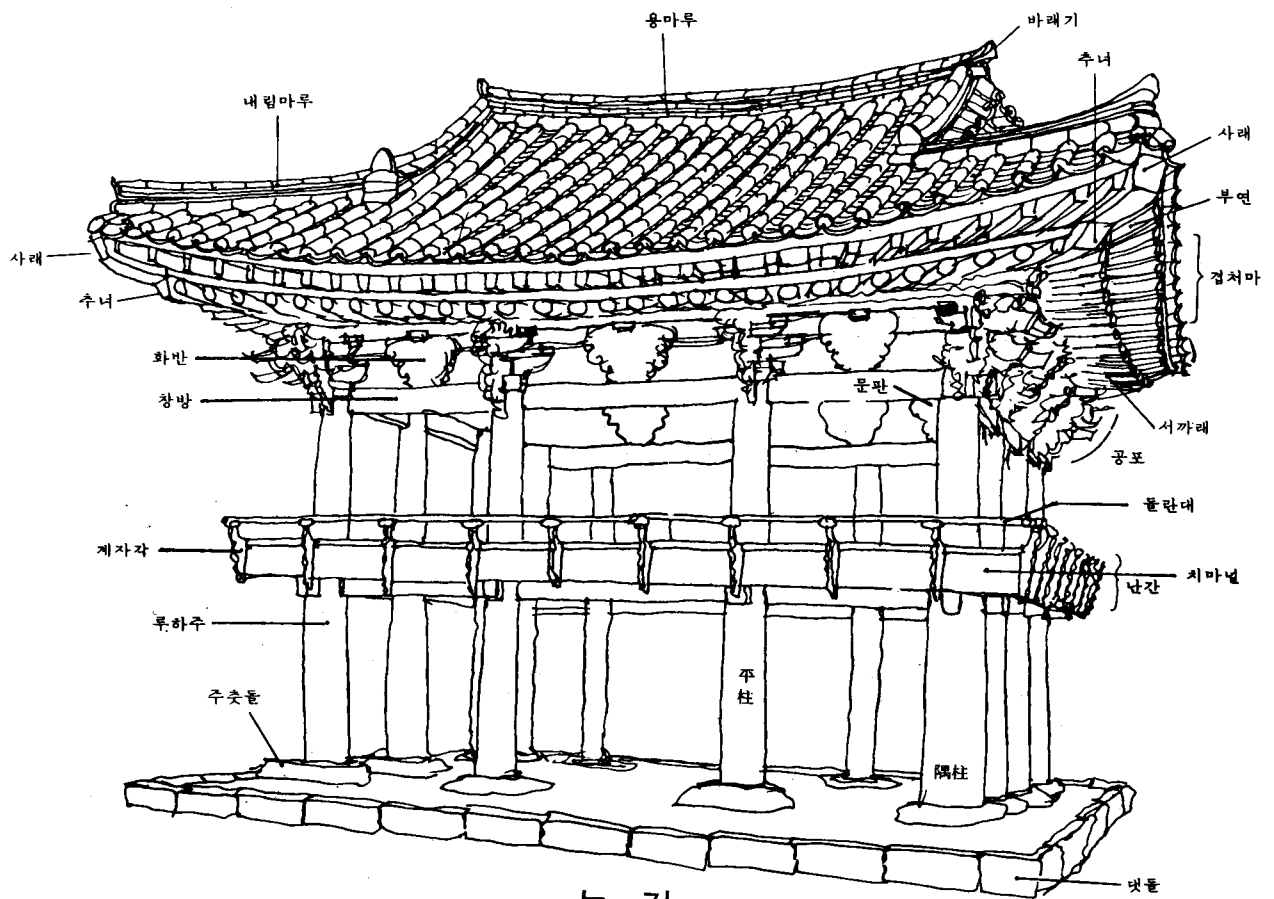
## 木造建物の 部分 名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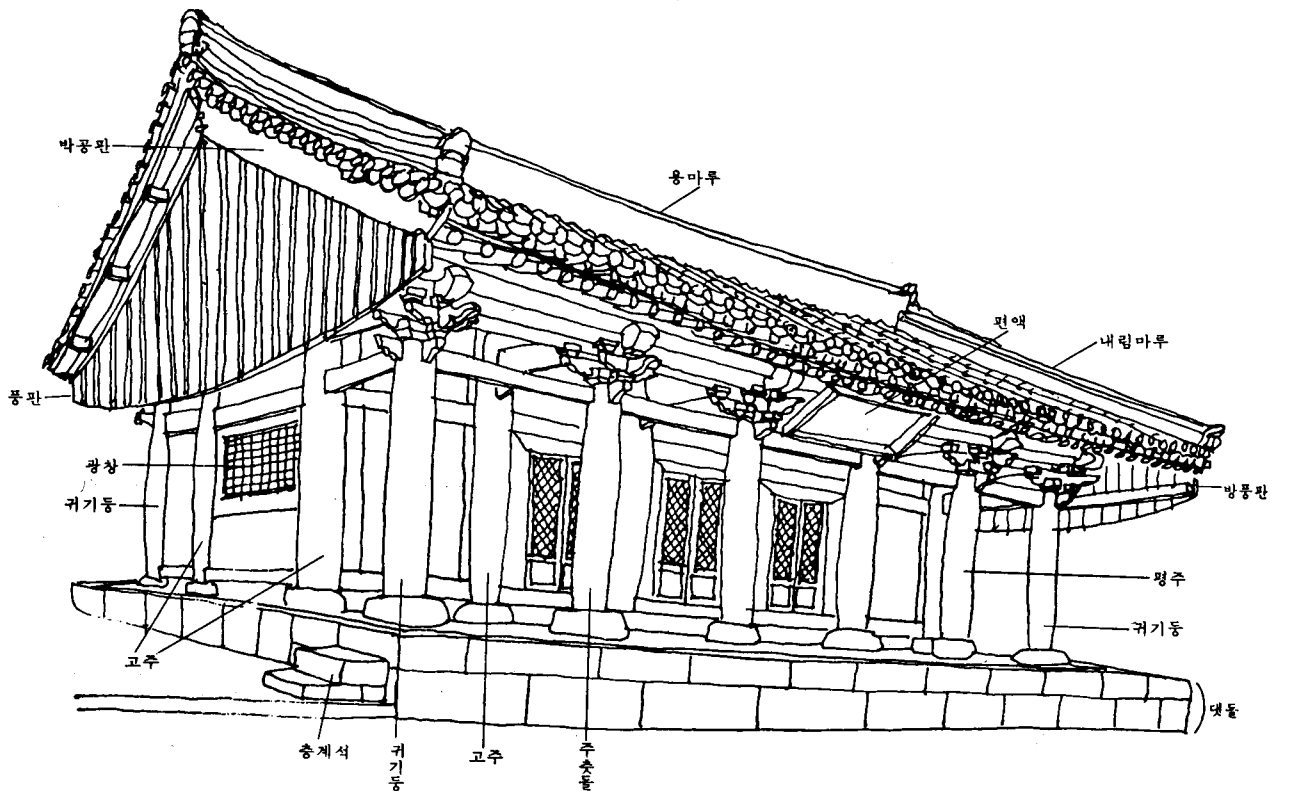
## 평삼문



## 팔작기와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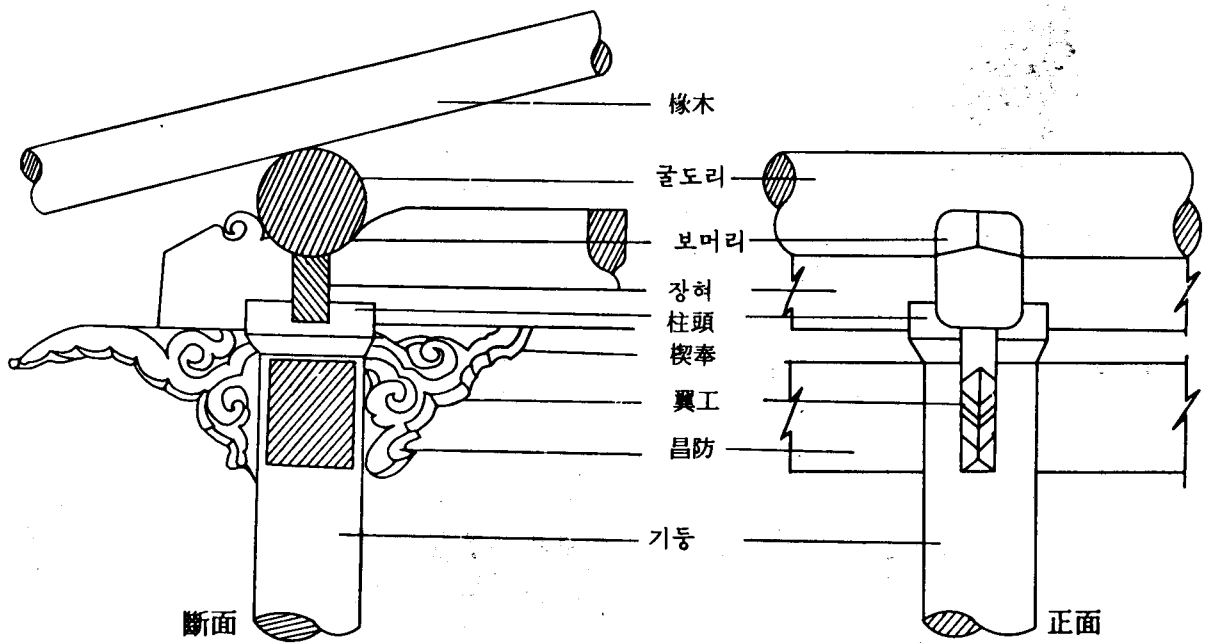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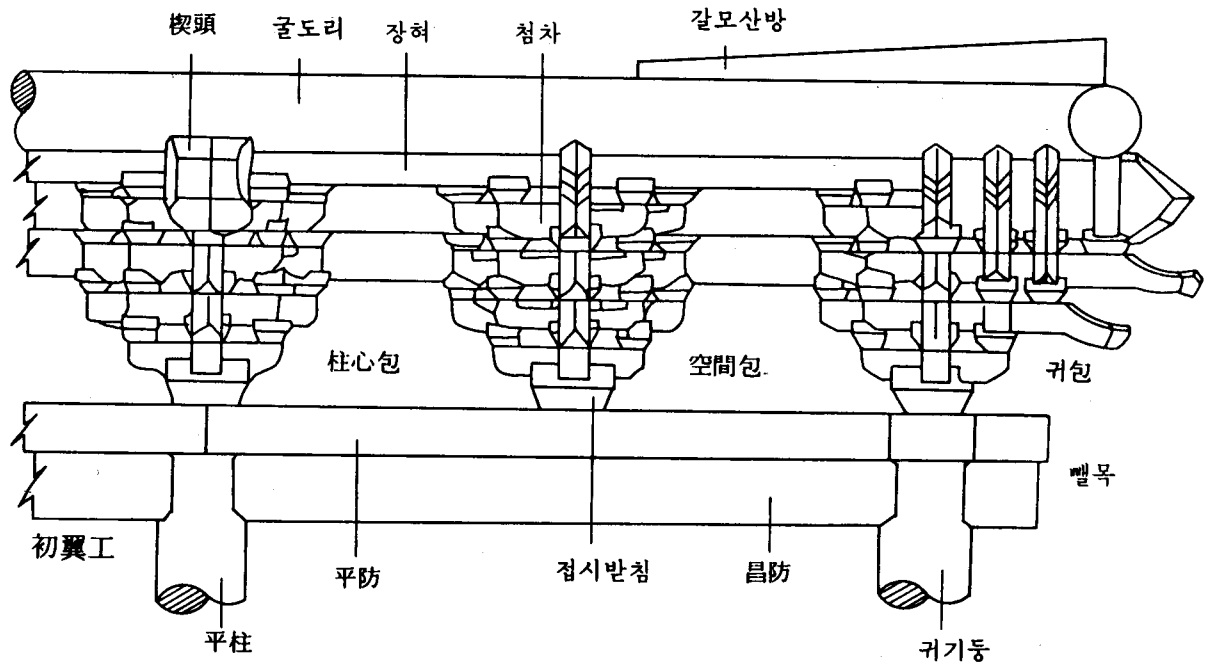
누 각



맞배기와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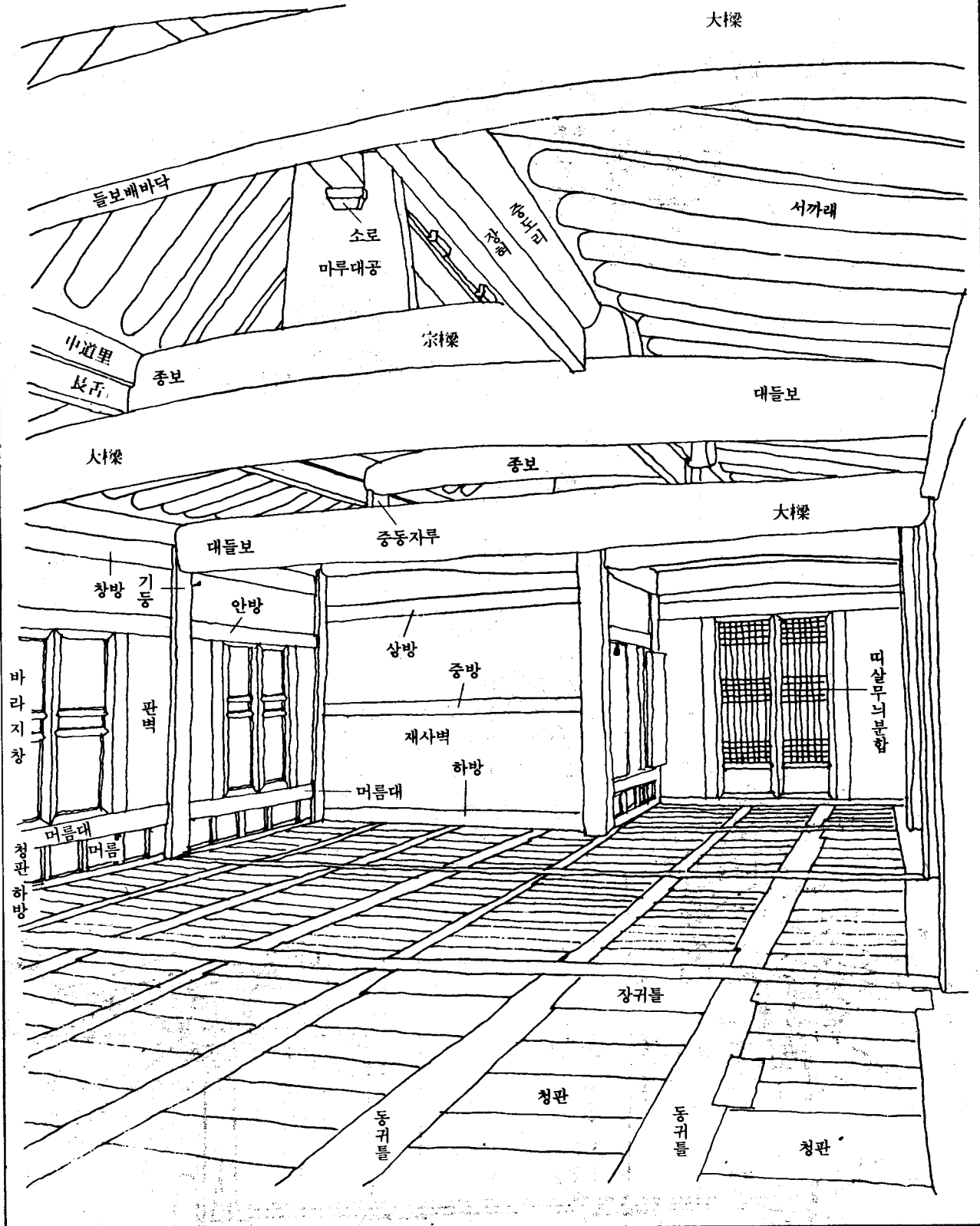
# 木造建物の各部分名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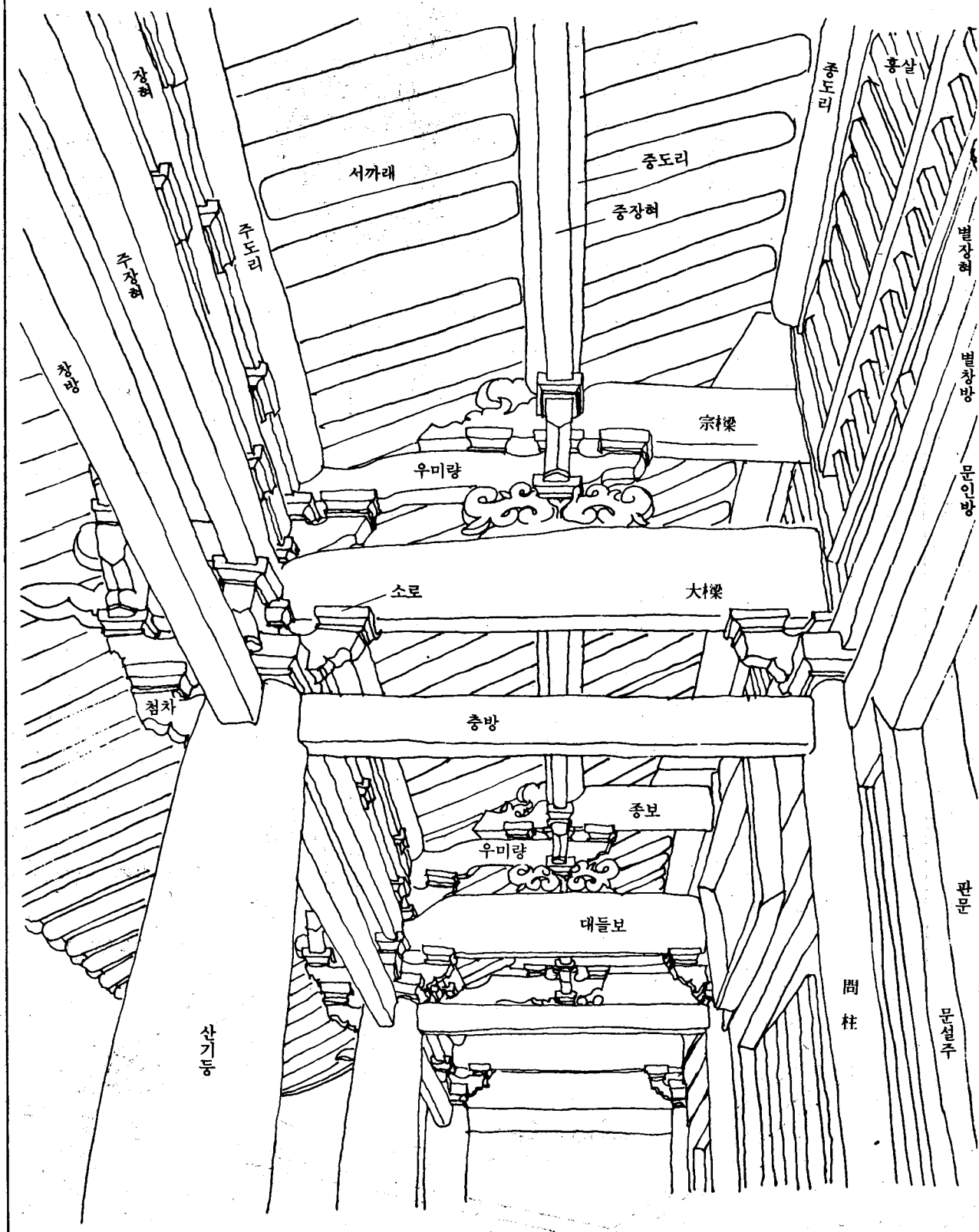




# 名稱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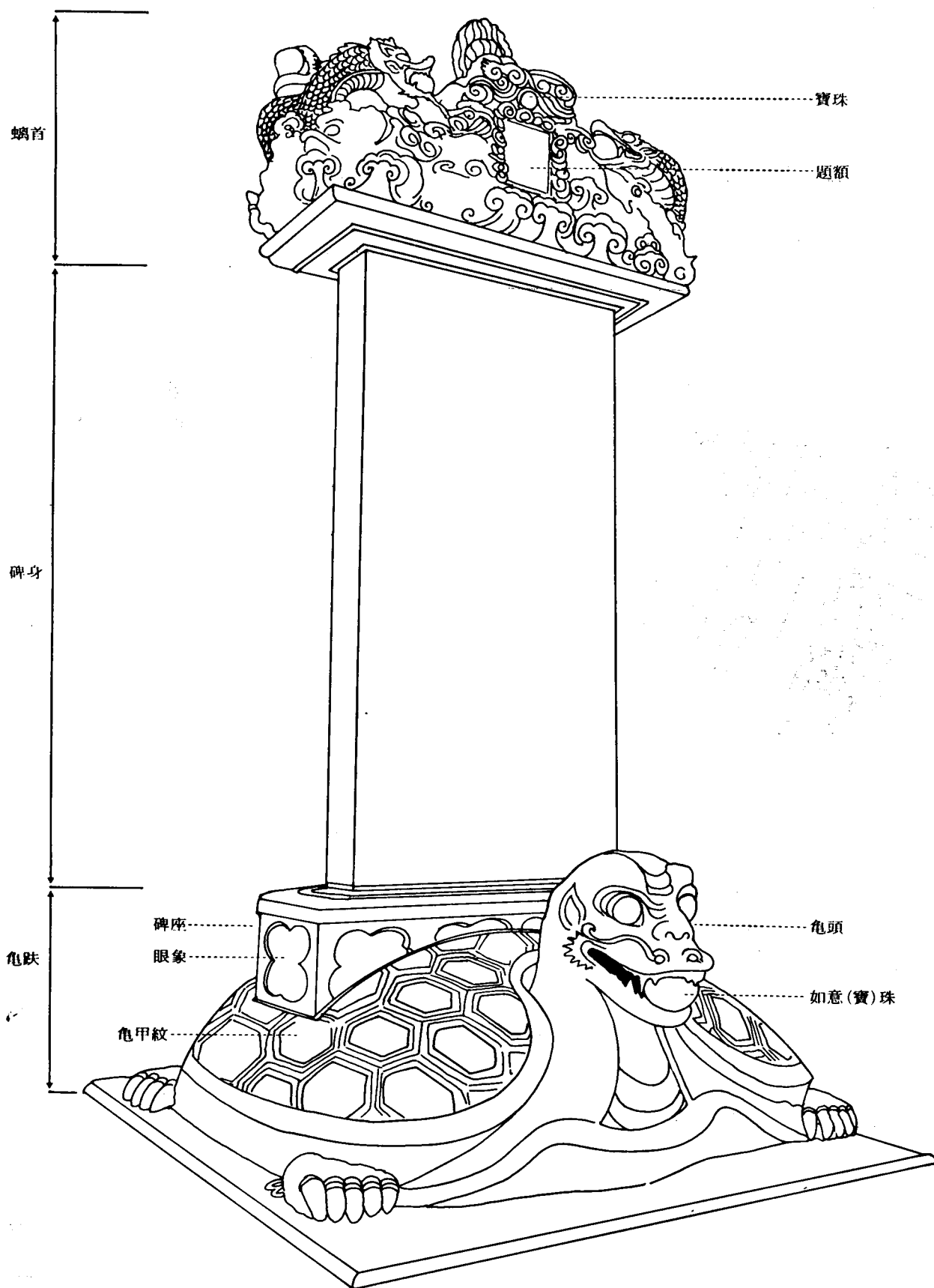


# 名稱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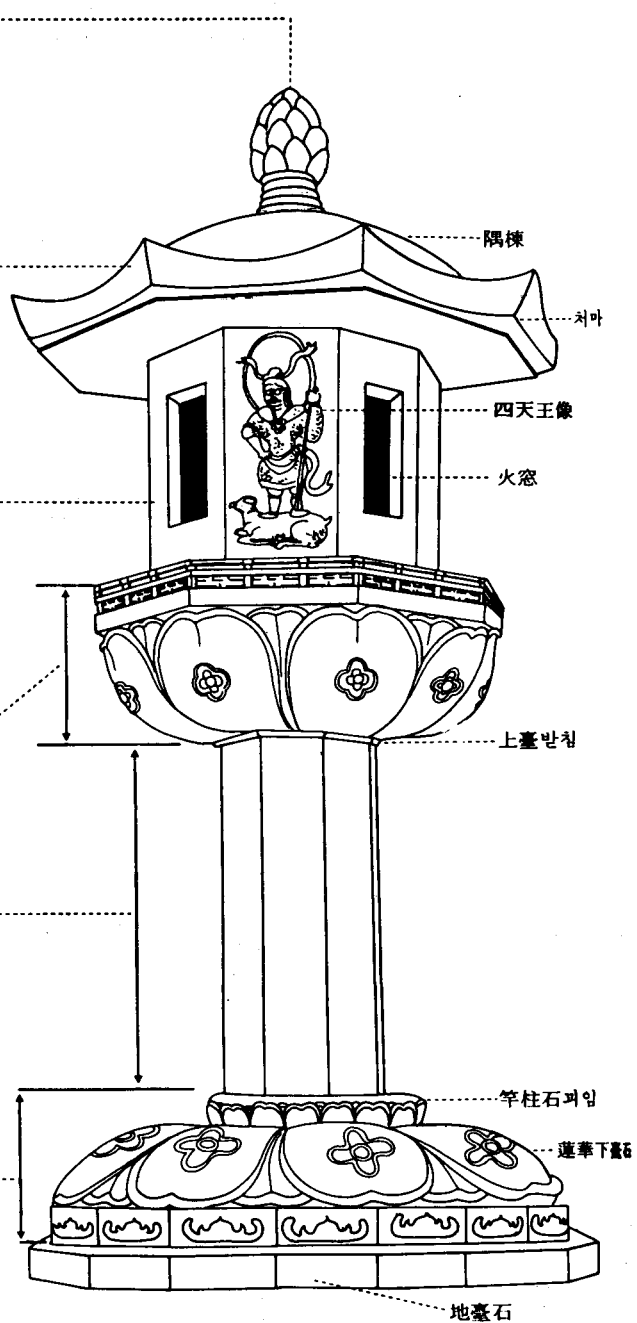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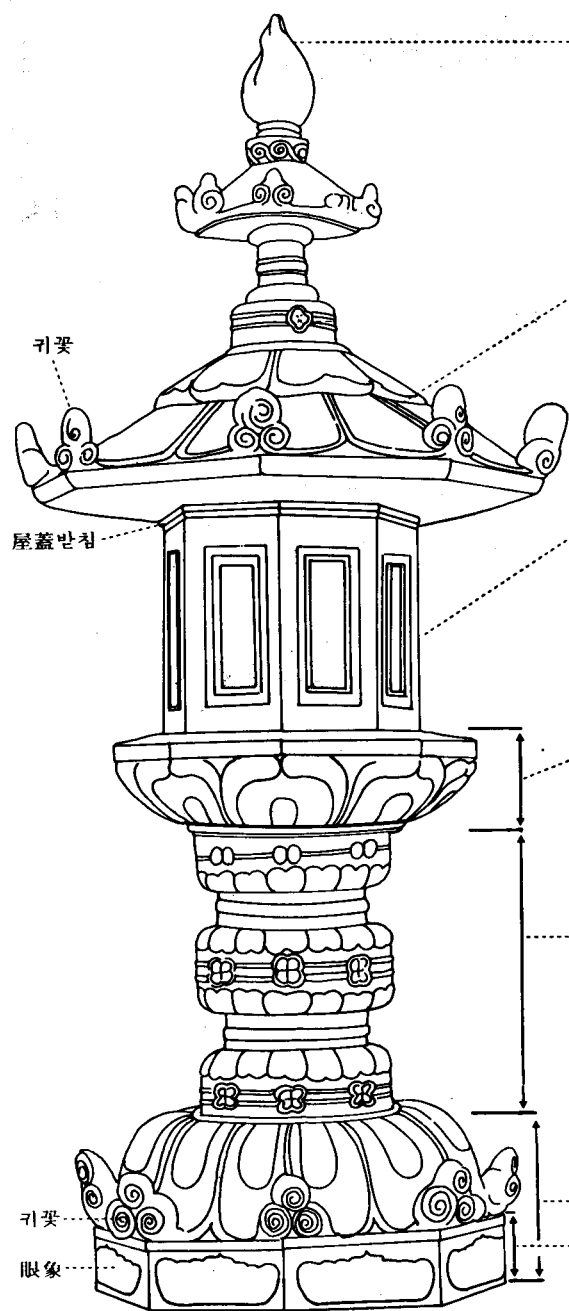




# 石碑·石燈의 部分名稱



石 碑



石 燈



## 편집 후기

- ◆ 이 『原州文化財要覽』은 원주시 문화재 중 指定文化財 41점, 非指定文化財 17점 등 총 58점의 문화재를 수록하였다.
- ◆ 이 문화재요람에 수록된 문화재의 범위는 원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전체와 원주의 사찰터에서 반출되어 경복궁에 옮겨놓은 석조문화재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11점), 유교문화재(3점), 태실(2점), 관방유적(1점)을 수록하였다.
- ◆ 편집은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國寶, 寶物, 史蹟, 天然紀念物, 重要無形文化財), 강원도지정문화재(有形文化財, 記念物, 文化財資料, 無形文化財) 등 지정 종별로 수록하였고, 비지정 문화재는 佛教遺蹟, 儒教遺蹟, 關防遺蹟 등 문화재 性格別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 ◆ 이 문화재요람에 수록된 사진은 성격에 따라 전면, 측면, 중요부분을 수록하여 문화재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 ◆ 각 문화재의 해설은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하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의 책에서 인용 또는 발췌 수록하였다.
  - 原州市, 『原州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7
  - 韓國文化財保護協會, 『文化財大觀』, 1992
  - 江原道, 『江原道史 傳統文化編』, 1995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文化財案內文集 (江原道編)』, 1987
- ◆ 문장은 국한문을 혼용하였으며, 固有名詞와 專門用語는 가급적 한자를 사용하였다.
- ◆ 이 문화재요람의 발간에는 다음의 사람이 참여하였다.

- 감 수 : 김교회, 김주완, 김호길, 박종락, 박찬언, 전석만, 정기섭
- 사진촬영 : 권오찬
- 자료수집 및 편집 : 박종수

## 原州文化財要覽

---

인 쇄 1998년 3월 일

발 행 1998년 3월 일

---

발행처 원주문화원

발행인 박형진

인 쇄 유일인쇄사

---

주소/강원도 원주시 원동

전화/(0371)764-3794

---

이 책자는 원주시의 일부 보조금으로 발행하였습니다.